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323 호

www.buddhanews.com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 745-8503 011) 286-2680 서울 삼육구 상록동
실상선원 041) 734-2680 천흑사 대전 논산시 관산면 송정리

금주 법구

나물밥에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었으니
기운 편하고 정신 맑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네.
뜬 구름 같은 부귀는 나의 일이 아니니
금대를 향하여 나무 스치는 바람소리 듣고
삼매를 이루려 하오.

-침굉 현변 스님-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스님, 입장료 내시죠"

"스님, 공원 입장료 내시죠."

지난 8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청량산도립공원. 경기도 분당의 한 스님이 신도 2명과 승용차 편으로 공원내 청량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측과 입장료(대인 800원) 시비가 벌어졌다. 이 스님에 따르면 관리소측은 '스님이 청량사에 상주하지 않고 동행한 신도들도 청량사 신도가 아니므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사찰 업무상 청



량사를 방문하는 것임에도 스님에게 입장료를 요구한데 화가 난 스님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은 "지난해의 경우 한 스님에게 공원직원이 승려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도립공원 지정(3년전)이후 '입장료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3월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성지순례를 오는 타지역의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입장료(버스 한 대당 1만8,000원)는 청량사가 대납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타지역 신도들과 포교사·교법사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원내 사찰을 찾는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는 가급적 무료입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5조의 제4항 8호에 적시된 입장료 면제 기준은 '당해 공원구역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 내에 '상시 출입하는' 스님과 신도란 규정의 범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불교계의 견해다.

특히 이런 규정 때문에 스님이 인솔하는 신도들이 성지순례 등의 종교행위를 위해 사찰을 방문하는데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자가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할 경우라도 자신이 소속된 종단의 신도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원측과 불교계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원과 사찰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탐방객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경건한 신앙공간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양측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공원 입장료 마찰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례 등의 보완을 위해 조계종과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0월 착공

조계종 "4600평 규모 업무·문화 공간"

26일 '건립기원 대법회' 열고 본격 추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오는 10월 착공, 내년 11월 준공된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사 경내에 연건평 4600평 규모로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과 중앙종회의 업무 공간, 전시문화 공간, 불교단체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640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축비는 380억원이다.



굴욕외교 108배 참회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 촉구를 위한 '굴욕외교 참회 108배 릴레이 정진'이 11~16일 효림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법장스님(무진 법장사 주지), 혜조스님(불교장기수후원회 대표) 등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은 13일 오전 108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적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의 정진 모습. 김재경 기자

원택스님은 "조계사 경내에 기념관을 세움으로써 불자들과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불사에 종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이 법회를 시작으로 불교역사문화기념과 건립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기원대법회는 원로의장 법전스님과 원로의원을 비롯 종회의원, 주요 사찰 주지,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 임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 대작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한다.

조계종은 혜암 종정을 증명으로 추대했으며,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위원장으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 3월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해왔다. 집행위원장은 영담스님이며, 종회의원인 영배, 진만, 자승, 총무부장 원택, 기획실장 현고,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건립되는 건물에 종무행정기관뿐 아니라 문화공간이 들어섬에 따라 명칭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정했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pia.com

"해인사 도로 노선변경" 조계종, 건교부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2일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해인사 지방도 59호선(성기~치인구간)의 노선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경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은 본종의 현장조사결과 해인사의 수행환경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이라며 "건설교통부에서 주민편의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해인사와 주민들이 합의한 가야~봉산구간으로의 59호선 우회노선 변경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

사찰 증개축 금지

환경부(장관 김명자)는 13일 보존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절 등 종교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금지하고, 자연공원내 사찰의 시설물 복원도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4일 시설물 복원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한한 것을 문화재청장이나 문화부장관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로 해야하며,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당해 공원내 사찰 주지를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김원우 기자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안면암·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사진),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밝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23일(월)~25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팔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23일 오전 10시 조계사 / 도착 : 25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2)-317-2555, 011-317-2555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장 군 죽 비

◇"건강"보다는 "미모"가 높이 평가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다이어트의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면)

◇만해 용성 스님이 지핀 불교 개혁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 있다. 만해와 용성 스님의 후예는 지금 어디에…. (15면)

◇산골 소녀 영자 山寺로 가다. 티없는 가슴이 또다시 멍들지 않도록, 저속한 호기심을 빨리 거두자. (22면)

◇갈곳 잃은 노인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아! 즐거운 인생'. (23면)

문화재관람료 소송 '신흥사 승소'

조계종 "관람료정책 개선 더욱 노력"

서울지법 민사8판독 재판부(판사 이원형)는 12일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신흥사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패소 했으며, 천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본 종단과 소속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또 "이번 소송의 근본 문제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및 문화재 정책 전반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설악산 자연보호구역 중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신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신흥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성운 기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탁발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탁발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함나무 박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特品이상)

품 명	구 성	재 질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섬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지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포 손매를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의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비롯한 고급 수의제품으로 안동포 손매를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星	남 20종, 여18종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재래식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로인 지차 염색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맺베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 586 2544 영업부 02 586 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사 설

日교과서 불교왜곡 고쳐라

역사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에 한 · 일 불교문화사 조차도 왜곡돼 있음이 밝혀져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음을 느낀다.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토착화시킨 고대 아스카(飛鳥)문화는 백제문화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그 유적과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 당시 성덕태자가 세운 사천왕사나 법륭사는 그 구조는 물론 불상 벽화 탑 등의 조성에 백제계 예술가의 흔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조성된 법흥사 역시 백제인이 짓고 백제에서 가져간 사리를 봉안하면서 당시 관리 1백 명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참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법륭사 백제관음상은 그 중 대표적 작품이다. 문제의 일본 새 역사 교과서는 '백제관음상은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과 조선에 자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고 기술하고 있다. 녹나무가 한국과 중국에 자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어디에도 한반도에서의 불교 전래를 언급한 곳이 없다.

역사란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그 역사를 후세에 가르침으로써 자부심을 키워 주거나 따가운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 고대문화가 한반도에서 영향받은 것임을 왜곡하는 일 역시 그런 면에서 옳지 않다. 첨예한 근 현대사 왜곡도 그러려니와 문화사 왜곡이야말로 보다 심각한 자기부정으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 넣는 일이 된다.

일본의 양심들조차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물론 후세들의 인간형성에도 문제를 남긴다' 고 비판하지 않는가.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점검해야 한다. 한번 끊다마는 냄비식 대응으론 이웃의 근원적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보로 일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불교문화사 왜곡 확인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불교문화사의 역사적 사실을 세부항목부터 밝히고 바로잡아 이를 일본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일부 극우세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다수의 일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을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다.

새싹포교는 한국불교 희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1년의 계획은 봄에, 그리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잘 세워야 하며, 일생의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어린 시절을 잘 보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미래를 가꾸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불교적 틔양에서 자랄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어린이 법회 개설, 유치원 설립, 초등학교 설립, 교육기구 및 교재 개발과 이러한 일들을 총체적으로 맡아 할 지도자 양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포교 정보 교류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 달리 우리의 수행자들은 어린이, 학생, 청년을 위한 법회의 개설과 운영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중 교화에 진력해야 할 수행자로서의 직무유기 정도를 넘어 불교발전의 걸림돌이기도 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즈음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말사마다 유치원건립 및 위탁운영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니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10개의 사찰에서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방에 위치한 월정사의 말사는 영리 목적의 사설 유치원이 들어서기에는 불리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은 농번기에는 교육의 차원은 물론이지만 일손이 바쁜 부모를 대신하는 기능도 크다. 단순한 포교나 교육을 넘어선 부처님 자비의 적극적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하루속히 모든 사찰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 개설을 의무로 인식하고, 1사찰 1유치원 운동이 조계종의 모든 교구 및 다른 종단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교육에 투자한 정성의 양만큼 미래의 희망이 열린다.

'수행점검' 가산포럼 연다

가산불교硏 내달부터 5년간…올바른 수행법 제시

불교 문화가 일궈낸 고결한 인간의 몸짓인 수행의 정보를 대중화하고, 사부대중이라 일컬어지는 수행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화합의 정신을 사회화하는 '가산 포럼' 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열린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전개하는 이 포럼은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를 대주제로 올해부터 5년간 우리의 수행문화와 풍토 점검에 나선다. (관련기사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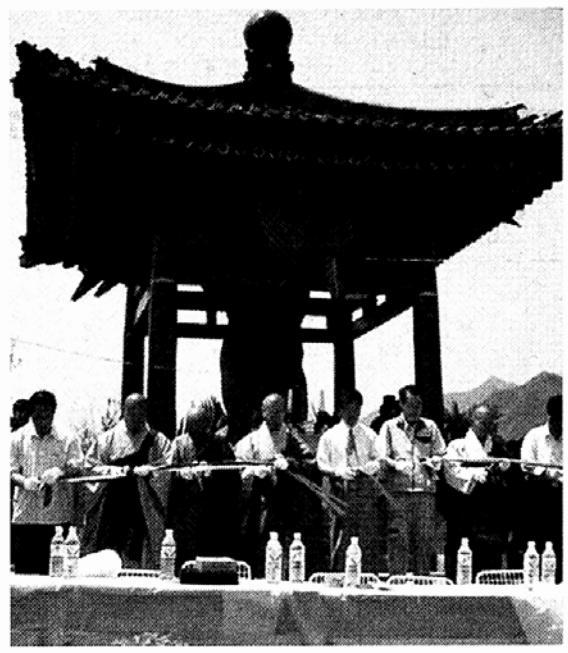
포럼을 통해 제3수행법이라 일컬어지는 신종 수행법 등으로 혼란스러운 풍토를 바로잡고, 불교수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정신문화로서의 불교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포럼은 오는 7월 6일~8일에 해인사 홍제암에서 '시대정신의 반성과 수행의 가치-몸과 마음 그리고 수행' 을 주제로 열린다. 원장 지관스님의 '시대지성의 반성과 수행을 통한 전망' 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수행의 의미와 우리시대의 반성', '유교와 도교에 있어서 수행과 그 전통', '유식학의 수행법과 그 현대적 의미', '화엄사상에서 본 수행법과 그 의미', '가상공간시대의 윤리적 상황자에게 있어 깨달음과 지성', '우리 불교의 수행전통과 그 지성사적 의미' 등을 통해 시대정신과 문화의 객관적 조명 속에서 불교수행의 문제를 다룬다.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두 번째 포럼에서는 '수행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 를 주제로 우리 전승사상과 인물로 본 시대지성을 반성하고, 수행정보의 대중화를 위한 전망도 짚어본다.

내년에는 1천년간의 불교지성사를 밝히기 위한 '천년의 한국불교지성' 을 주제로 포럼이 열릴 예정이며, 2003년에는 '불교의 생명관과 우주의 미래', 2004년에는 '불교와 철학이 말하는 시공의 운영', 2005년 '수행문화의 사회화' 등을 다룰 계획이다.

특히 가산포럼은 일반 세미나나 포럼에서 결핍됐던 실천의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매번 사찰에서 실제 수행을 겸한 수련 포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포럼의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해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 출 재가자에게 바른 수행의 길로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中 선유사에 혜초스님 기념비

조계사(주지 지홍)는 13일 중국 섬서성 선유사에서 '신라고승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장 혜자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선유사 주지 국선스님, 섬서성 주지현 김전제 문화국장, 선유사 왕청림 문물관리소장, 변인석 전 아주대 교수와 한국과 중국의 불자 150명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혜자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높은 법력으로 대중을 교화했던 혜초스님은 양국민 모두가 받들어 모실 성인"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한국 고승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섬서성=고영배 기자

인터넷 운영자협 발족

불교계 45개단체 참여

카페 사이트서 정보교류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등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 ·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가칭)불교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발족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8~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 연수에 동참한 교계 인터넷 종사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교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45개 단체 70여명은 한마음선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나무(www.hannamu.com)에 카페를 개설해 한글대장경과 같은 원천 데이터 공유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불교계 IT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산하에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와 기술지원기구 등 소모임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계 IT 종사자 연수를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할 계획이며, 대한불교진흥원은 내년부터 불교계 IT산업 발전과 인터넷 포교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현실과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의 '인터넷 불교포교와 방법론', 유권준 씨의 '국내외 인터넷 불교사이트의 현황',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의 '불교계 인터넷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등의 강의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괴산=김두식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세상이 변해도 수행정신만은…

사찰수련회 정보센터 운영

8월18일까지…프로그램 안내

2001년도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02-7300-108, www.pogyo.org)가 1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교원 연구실장 명조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영담스님, 정보센터 소장을 맡은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 교육원 교육국장 견진스님, 동화사 포교국장 종본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8월18일까지 운영되는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는 수련법회 참석을 희망하는 불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는 물론 사찰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수련법회 개최를 원하는 사찰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교원은 올해부터 수련생활 규칙 및 시간계획, 프로그램 강의내용 등 수련법회 운영에 관한 교재와 불교상식, 사찰소개, 사찰예절 등 의식에 필요한 부분을 담은 수련교재를 이달말까지 제작해 수련법회를 개최하는 사찰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화계사 국제선원 · 연등국제불교회관

외국인 기초선원 교육장 지정

조계종 교육원(원장직대 계성)은 8일 외국인 기초선원 관계자 회의를 열고 화계사 국제선원과 연등국제불교회관을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기초선원 교육장으로 지정했다. 또 계성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성광스님(화계사 주지), 원명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 3인으로 한 외국인 기초선원운영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올해 하안거가 끝난 직후인 9월 초순경 95년 이후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하안거를 해제한 외국인스님 20여명을 대상으로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산철교육을 실시한다.

한명우 기자

경기북부 신도지도자 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북부경기 지역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23일 오전 9시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수회는 봉선사 조실 원운스님의 '불교적 세계관',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생명살림 · 생태적 삶을 위한 불교의 역할' 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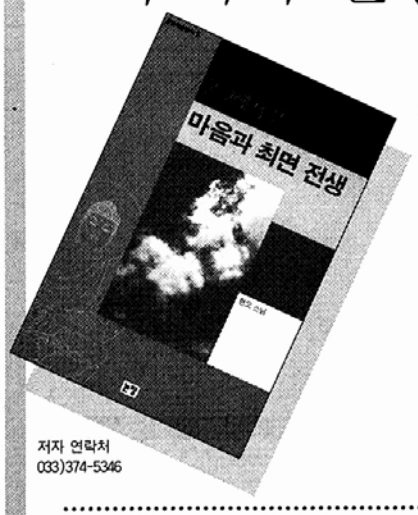
탑골공원 원각사지 재조사

그 동안 불교계에서 요구해온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13일 3분과(사적)와 6분과(매장문화재)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원각사지에 대해 부분 발굴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논장출판사 02)335-0506

우리의 전생과 미래는 어디에?



저자 연락처
033)374-5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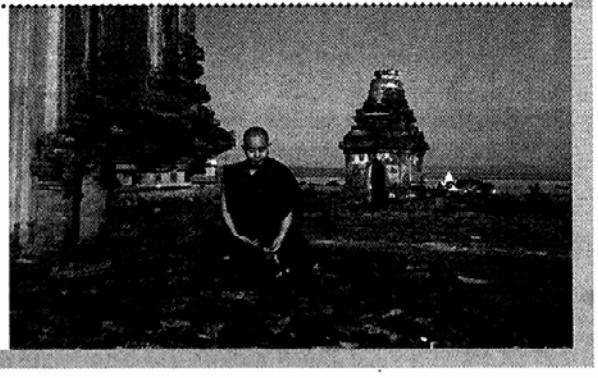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

현오 스님 지음/신국판/236쪽/8,000원

오랜 수행과 포교 활동으로 대중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온 현오 스님이 안내하는 최면과 전생 체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전생 체험!
전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전생과 현생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달아 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글을 쓴 현오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스님으로,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명상법을 수행하고 현재 선원과 토굴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고 죽고 모든 것을 만들고 없애는' 마음에 대한 수행을 하던 중에, 근래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최면 전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생과 윤회는 마음을 닦아 해탈하는 것이 근본인 불교의 교리로만 진실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수행 주체인 스님들이 직접 정리한 이론이 없는 것에 더욱 절실히 이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년간의 수련과 실습 끝에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오 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얀마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립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돌이켜 보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일깨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참하셔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 도 : 현오스님 / 차차석(철학박사, 불교학 전공) / 임승택(철학박사, 위빠사나 전공)
일 시 : 2001년 7월6일~8일 (2박3일)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관광농원(033-764-3007)
회 비 : 10만원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접수처 : 02)419-1253, 02)571-5413 (6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함)

주최: 大智전생연구회

첫째날 세부일정
오후 2:00 - 집합, 인원 점검
2:00 - 일정소개 및 인사(현오스님)
3:00 - 요가
4:00 - 휴식 및 간담
4:30 - 불교 심리학①(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자유시간
8:00 - 위빠싸나 강의(임승택)
9:00 - 최면 소개와 자기최면(현오스님)
10:00 - 취침

둘째날 세부일정
오전 5:00 - 요가 및 자비관
6:00 - 아침식사
8:00 - 위빠사나(임승택)
10:00 - 위빠사나 점검 및 간담
오후12:00 - 점심
2:00 - 위빠싸나(임승택)
4:00 - 불교 심리학 ②(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전생 최면 실습(현오스님)
9:00 - 전생 최면 점검 및 간담
10:00 - 전생 최면 각자 실습

교통편
■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강릉 방향으로→
남원주 인터체인지에서 제천방향으로→
신림 인터체인지에서 주천방향(제천이 아님)
국도로 약 10km→
황둔3거리 못미쳐 관광농원으로 좌회전
■ 대중교통
원주에서 황둔까지 시내버스와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목어

서둘지 말자



누구든지 한국문화를 '빨리빨리' 문화라고 한다면 비단 한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한동안 한국 사회는 초고속 실적달성을 자화자찬하며 무슨 큰 장점이라도 되는 양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만 가는 요즘에는, 급히 서둘러서 얻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애써 기억을 되살리지 않아도 아픈 기억은 너무나 많다.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비약적이고 급속한 개발 · 건설 · 발전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구었다. 그러나 한강다리 가운데 가장 튼튼한 다리,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과연 어떤 다리일까? '성수대교' 붕괴 후 한강다리를 건너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와우아파트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참변, 가스 폭발 사건 등 급히 서두른 결과가 가져온 상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업으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조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가 하면 남의 부주의로 내가 불구가 되고, 또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다 사고가 나서 당하는 불행은 일상화 되다시피 됐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먼저 가겠다는 빨리빨리에서 오는 조급증과 통제불능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조급증으로 인해 입은 상처조차도 서둘러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일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잊는 것조차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반성할 기회마저 잃고 만다.

한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밀하고 점잖은 문화전통을 살리고, 빨리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라 천천히 끓여서 먹는 된장찌개의 맛을 우리 생활 윤리에 접목시켜 기다림의 미덕과 도덕을 빨리 회복시켜야만 즐겁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서둘지 말자. 그래야만 사회문화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세계시장에서의 신인도도 배가 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친환경적 문화 숨쉬는 청사 짓는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밑그림'

사업비 640억 투입…내년 11월 완공
조계종 "불자 십시일반 동참 기대"

조계종이 1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98년 종단사태로 중단됐던 청사건립 불사가 본격화됐다.

많은 불자들은 현재의 청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차례의 종단사태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계종의 화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의 얼굴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중수도시설의 설치, 자연광의 활용, 초저에너지 기술 및 유지 등 친환경적 건축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로 현재의 총무원 청사 뒤편에 들어선다. 연면적은 14,876㎡(4500평)으로 현 총무원 청사(800평)보다 5배 이상 넓다. 지하 2~3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수조, 지하 1층은 문화재 연구실과 문화재 수장고가 들어선다. 지상 1층은 다목적홀(국제회의장, 공연장)과 단체 사무실, 지상 2층은 기획전시실, 한국불교역사실, 성보문화재실, 동양불교전시실, 지상 3층에는 한국불교문화정보센터, 불교자료실, 불교문화체험실로 꾸며진다. 4~5층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업무공간으로 쓰인다.

10월 착공하면 현 교육원 건물이 헐린다. 총무원 건물은 그대로 두되 기념관 완공 후 철거된다.

총사업비 640억원이 들어간다. 건축비는 380억원이지만, 인근 민가 구입비가 만만치 않다. 부지 매입에 이미 260억원이 들어갔고, 적립된 30억원의 시설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마련해야 할 돈은 350억원이다. 집행위원회는 교구본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될 수 있는 한 교구본사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립 불사는 이달 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를 시작으로 △7월중 추진위 사무실 입주 및 전담실무인력 배치, 기본설계 검토 및 승인 △8월 문화재 심의 접수 및 시공사 선정 준비 △9월 실시설계 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 △10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 △2002년 11월 준공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7일 일건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 감리 계약을 체결,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은 지명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공사수주 순위 10위 내에 든 업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조계사 대웅전~기념관 사이 폭 20m의 공간은 녹지로 조성된다. 우정국공원과 전통불교문화 공간으로서의 조계사 그리고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어우러져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념관은 한국의 불교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포교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총무원 청사는 75년 당시 고산 총무원장 재임 때 완공됐다. 98, 99년 종단사태 때는 분규의 상징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화재가 발생해 불에 그슬리기도 한 상처를 안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들어설 현 교육원 건물과 그 주변. 내년 11월 완공되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현 총무원보다 5배 이상 넓은 공간에 불교역사와 문화를 아우른 불교종합문화관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 관람료 승소이후

사찰 재정구조 변화 '숙제'

"부당이득금이다" 참여연대 항소
"국민 정신휴양처" 조계종 대국민 홍보

12일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의 판결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의 피고가 됐던 천은사와 신흥사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서 천은사를 상대로 해서는 이미 항소를 했고, 신흥사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임을 밝혀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1심 패소 후에도 소장에서 밝힌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사찰로 들어가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조계종으로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며, 사찰 경내를 지나며 경내의 거의 전부가 문화재인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국민들의 정신적인 휴양처를 제공했음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종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조계종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통합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환경 ·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 해도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다. 똑같은 유형의 민원에 대해 기급적 빨리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도 고민거리로 삼아야 한다.

사찰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관람료 사찰의 서비스 향상 등 조계종이 안은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성운 기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0년

불교학 대중화 '한몫'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16일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지관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1991년 6월 16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 한 복판에 문을 연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전통의 창의적 수용을 통해 인간의 본래 불성과 근본 법성을 발현시킨다'는 연구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불교학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한국불교대백과사전 편찬, 학술, 교육, 출판, 교화의 5대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도 매진해 왔다.

특히 1996년 문을 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은 불교 고유의 이수방법인 논강 및 전강의 전법 전통을 오늘에 이어, 근본 경전 및 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 전수와 진보적 불교학의 연구결과를 두루 섭수하는 전문연구와 인재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6년 제1기 입학이후 현재 본과 40여명, 연구과정 50여명이 정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총서〉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한

교육 · 출판 등 5대사업 전개
삼학원 논강 · 전강 전통 계승

국불교사상사〉 〈가산학보〉등 40여종의 교학서와 자료집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사상을 체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99년 첫 권을 발간한 이후 오는 7월 제4권을 출간하는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은 기존 사전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불교술어를 수록해 불교문화와 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원 이후 10년간 '세계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혜초스님 기념 세미나'를 비롯해 '일본화엄학연구소와의 교류', '독일 헤겔학회 심포지움 개최' 등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승가치와 삼학(三學)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성과들을 이끌어 냈다.

개원 10주년을 기점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수행과 연구를 표방한 '가산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행 가치를 보편화 시키고, 이를 대중화 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삼장을 통한 삼학 연구의 선도작업으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으로 된 삼장 기본논서의 교감역주 작업, 가산삼학총서의 발행 등도 전개하게 된다. 이 가산삼학총서 시리즈 가운데 수행논서 제1권 〈빠띠삼미다박가〉가 7월 초 출간될 예정인데, 〈빠띠삼미다박가〉의 출간을 필두로 지난 1천년간 유행했던 수행논서들을 차례로 번역 정리해 발간해, 대중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봉행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은 불자들 및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한국불교 총본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이에 원로대덕스님들과 중진 스님들, 그리고 신도 여러분 등 모든 조계종도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의 의의를 함께 나누고 건립을 향한 원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여러 스님과 신도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종단의 위의를 세우고, 미래를 열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일 시 :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26일(화)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정 대

일주문



초안 스님 추모법회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은 29일 오전 10시 오봉산 석굴암에서 열리는 초안스님 열반 3주기 추모법회에서 법문한다.



보현문화회관 10돌기념 법문

우룡 울산 학성선원 조실은 26일 오후 7시 보현문화회관 법당에서 열리는 개관 10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교정위원 불교협의회장 추대

현성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은 5월 30일 열린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회 총회에서 불교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日 인도불교학 세미나 참석

도업 동국대 교수는 일본 동경대에서 열리는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조계종 문화국장에 임명

심우 거창포교당 주지는 15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99년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한국예절학회서 강연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20일 한국예절학회에 참석해 '문화시민 의식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석불좌상 점안법회

종덕 충북 단양군 청련암 주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석불좌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음식 시연회

선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22일 오후 5시 故 윤보선 前 대통령 저택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한다.



지장보살 점안법회 법문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7일 태고종 충남교구 송암사 300 돌탑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에서 법문했다.



교육원 개원 일일찻집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은 23일 중앙동 다전에서 부산불교교육원 개원 기념 일일찻집을 연다.

'나' 보다는 주변 먼저 보자

방한 티베트 고승 라마 도붐 툴쿠 스님



"우리는 모든 유, 무정물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회 초청으로 12일 방한한 티베트 고승 라마 도붐 툴쿠(Lama Doboom Tulku · 60) 스님은 동산반야회관 3층 법당을 찾은 불자들에게 '나' 보다는 '주변'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편적인 책임과 새로운 윤리'를 주제로 강연한 도붐 툴쿠 스님은 "'나'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서로의 관계를 외면한 채 이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고'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보편적인 책임과 새로운 윤리에 관심을 둘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현상보다 동기를 보아야 한다"며 "동기의 성격, 즉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그 동기가 이기적이면, 모두를 파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환경 파괴와 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이유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꼽았다.

라마 도붐 툴쿠 스님은 티베트망명정부 티베트하우스의 원장으로 있으며 티베트의 문화, 역사, 사상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을 돌며 성(聖)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례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 스님은 한국사찰을 돌며 법문과 함께 티베트의 문화와 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 · 일 불교문화 교류 촉진 기대"

일본서 첫 공연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 스님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 불교문화를 처음으로 일본인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한편 사명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으로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는 7월 28일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경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영산재 공연을 갖는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스님(태고종 봉원사 주지)은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에 한국 불교의식 중 가장 웅장하고 성대한 의식으로 손꼽히는 영산재를 공식 공연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인연이 되어 일본문화교류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초청받은 이번 공연은 한달 반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1700석 표가 완전 매진이 되었다고 일본 사람들의 높은 관심도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연력사 스님들이 일본 성명(聲明 · 일본식 범패)을 40분간 공연하고 이어 한국스님들이 영산재를 80분간 공연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전통 범패가 나란히 무대에 오르는 일도 처음이라 양국의 불교의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색 무대가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산재보존회 준보유자 구해 스님부터 이수자, 전수자 등 스님들과 악사 등 46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동참해 시연회를 갖게 되어 한층 장엄하고 화려한 법석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고 밝힌 인공스님은 "현재 송암, 벽응, 지광 스님 등의 잇단 열반으로 비어있는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을 보다 세분화해 빨리 지정받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법회 · 수련회 자주 열겠다"

불교언론인회 2대 회장 공종원 씨



"회원들이 불자로서 자기 수행에 관심을 두고, 언론계에서 그 역할을 뚜렷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12일 열린 한국불교언론인회(이하 한불언)의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에 선출된 세계일보 객원 논설위원 공종원 씨. 공 회장은 "창립 4주년을 맞은 한불언의 조직과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 회장은 "법회나 수련대회 등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한불언 발전의 첫 단추를 풀겠다"고 말했다.

한불언은 이날 총회에서 신행 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불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불교특강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오종욱 기자

"도난문화재 수사전담반 검찰도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 받은 이한성 부장검사



"효율적인 문화재 도난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도 문화재사범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 이한성 부장검사는 검찰 내 문화재사범 전담반의 신설을 특히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대규모 문화재 밀거래단을 적발해 낸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2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당시 사건을 통해 해인사 중건 발원문, 능엄경 언해 등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던 국보급 불교문화재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2달여 동안 수사하면서 밤잠 한 번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증거가 없어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다. 해당 사찰이 도난 사실조차 모를 때는 정말 난감하고 안타까웠다"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 문화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문화재사범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 사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김천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편 수사 담당 검사였던 이두봉 검사와 기필선 검찰주사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밀거래단을 적발해 불교문화재 회수에 공을 세운 전주지방검찰청 최순용 검사도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는 9~10일 조계사에서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900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무진장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무차법문으로 시작됐다. 10일 열린 본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해 백창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횡성 대승사 지장보살 점안법회

횡성 대승사(회주 리선행법사)는 9일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병진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점안법회에서 회주 리선행 법사는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자"고 설했다. 높이 3.3m의 지장보살상은 중국 구화산 김지장스님 상을 본떠 제작됐다.



두레생태기행 창립10돌 기념행사

두레생태기행은 14일 송현클럽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회원의 밤 및 〈생태기행〉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이날 기념식에서 김재일 회장은 "불살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환경운동 근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레생태기행은 9월중 두레생명문화연구소를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연등축제' 회향법회

부산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회장 성오)는 12일 코모도호텔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연등축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우바이무용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불교운전기사불자회 등은 공로패를, 부산시 문화예술과 엄윤섭 씨 등은 감사패를 수상했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학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삼매체험 선 수행

타력신앙 정리 선 수련법회

불교는 자귀의(자신에 귀의함)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 타력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욕망성취의 수단으로 기복신앙을 열렬히 하며 신앙생활이라 하고 불교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불교를 한 보람은 이승에도 저승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참된 수행의 경험으로 스스로 밝아, 이 밝은 지혜와 광명으로 어두운 주변과 세상을 비추며 불행(佛行)으로 살아갑시다.

1. 대상 및 인원 : 직장인 주부 청 · 장 · 노년 대학생 70명
2. 수련일정 (4박5일) - 1차 : 8월 3일 - 8월 7일,
2차 : 8월 10일 - 8월 14일
3차 : 8월 17일 - 8월 21일
3. 접수 : 7월 10일까지.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세요.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합니다.)
◆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회비 없음
(뜻 있는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 수련이 이루어지게 됨)
5. 신청 및 서류
1.성명 (한글,한자) 2.주소 (자택,직장)
3.전화 (자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경험 유 · 무(유 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1~9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6. 자원봉사신청과 내용 : 매 차수별 5명내외
7.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신발 (행선용). 작업용 장갑
8. 문의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월~금). 일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9. 문의 :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1) 1구좌 10만원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
2) 온라인 : 농 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000548
예금주 : 원명선원
10. 접 수 처 :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

☎ 064-755-3322 전송 064-755-0880
홈페이지 www.kebi.com/~k690524

무차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직능불자회 전국모임 친목 다지고 신심 새롭게

23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유니텔 불교동호회의 수련대회 및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직장 · 직능 불교단체들이 연이어 전국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모임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는 것 외에도 지역 불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포교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전국 단위의 모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교사불자연합회가 지난해 8월 월정사에서 실시한 '하계수련대회'. 사진은 참선삼매에 든 불자교사들의 모습.

전국산악인련 사찰환경·생태계 보호 다짐
공무원불자련 53개기관 송광사 합동 법회
교정인 불자련 3백여명 범어사서 하계수련
유불동·하불동 수계법회 열고 참선 사경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순천 송광사에서 '제2회 합동순례법회'를 봉행한다. 공불련은 이번 성지순례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의 법문을 듣고,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사상이나 〈대혜어록〉 등과 같은 한국불교의 정수를 배우며 신심을 다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불련은 감사원, 국정원, 행자부 등 국가기관 19개 단체와 각 구청 불자회 등 총 53개 기관 불자회에 합동순례법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유니텔 불교동우회 부처님 나라는 23~24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제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회원과 그 가족들은 이번 법회에서 참선, 아침예불, 정근, 도량청소, 반야심경 사경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 교정기관에서 재소자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불자 교정인들도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대회에는 전국 39개 지회 간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신행사례 발표와 특강, 관음정근, 참선, 사찰순례 등을 통해 불자 교정인의 원력을 다질 예정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산 수덕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초발심 교사를 위한 수련대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불자 교사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는 '현각스님 특별강좌', '찬불가 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초발심 불자 교사들을 위해 사찰 예절과 함께 실생활이나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행에 대한 정보도 나눈다.

하이텔 불교동우회도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전국의 7개 지역 모임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철야정진에 이어 9일 전법계사로 초청된 혜정 스님의 법문과 수계법회로 진행된다.

나우누리 불교동우회 부처님 마을과 천리안 불교동우회도 전국 단위의 하계수련대회를 마련한다.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광주 극락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처님 마을은 이번 대회를 회원 및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천리안 불교동우회 역시 8월중 수련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이하 산악인련)는 9월중 김천 직지사에서 전국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당초 24일로 예정됐으나, 가뭄으로 연기됐다. 전국 40개 지회에서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법회에서 산악인련은 사찰환경 및 생태계보호의 첨병으로서의 불자이기를 서원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10일 금산상업고 교정에서 전국 23개 지회 회원들이 동참한 운불련 전국체육대회 모습.

'거리의 포교사' 불심 뭉쳤다

운불련 전국체육대회…대전지회 우승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전법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불자 운전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는 10일 전주 금산상업고 교정에서 전국 23개 지회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민속놀이,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테니스 등 9개 종목으로 나누어 23개 지회의 열띤 응원전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대전지회는 우승을, 안양 및 대구지회는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앞서 김주본 회장은 "각종 사회 봉사활동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글·그림으로 수놓는 새싹불심

대불어 24일 연꽃백일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는 24일 범어사에서 제1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1984년 연꽃 백일장으로 시작된 연꽃문화제는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 5세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문 및 운문 글짓기, 그림그리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행사 참여 신청은 행사당일 범어사에서 받는다. 부산광역시장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등 푸짐한 상과 기념품이 증정된다. (051)818-7187 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임업불자회 소식지 발간

임업연구원 불자회는 〈임연불교〉 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10선행은 도덕률'이라는 제목의 연재와, '불교서적 출판 증진과 불교도서관 확대 설치'라는 제목의 제언 등이 수록됐다. 〈임연불교〉는 주요 사찰 및 주요 불교교양대학에 배포되고 있다.

세무사불자회 성지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는 윤4월을 맞아 16~17일 경주, 대구, 서산, 김천지역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 나한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은해사 거조암, 기도하면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신라불교 초전지 도리사,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직지사 등을 순례하며 업장 소멸을 간절히 서원했다.

한빛 불자회, 건강법회

한빛은행 불자회는 12일 본점 4층 강당에서 이영규 법사(한국자연건강회 고문)를 초청해 건강법회를 봉행했다. 행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에서 불자회 회원 및 행원들은 이법사가 소개한 식이요법 및 체조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제아제 무량사 답사



불교문화답사단 아제아제는 17일 충남 부여군 무량사를 답사했다. 원각사 청년회 산악회원 등 48명의 참가자들은 동양 최대불상인 아미타여래삼존상을 친견하고, 무량사 주지 범일 스님의 법문을 듣고, 108배와 참선을 실시했다.

경주시청 불자회 창립



회원 50명…회장 박완규씨

경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법향을 전할 경주시청 공무원불자회가 12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사진)를 봉행하고 닻을 올렸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이원식 경주시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창립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성타스님의 법문과 불국사 부주지 종상스님의 발원문에 이어 불국사합창단과 선재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경주시청 공무원불자회 초대 회장을 맡은 박완규(기획공보과 보도지원반장)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무나 일상에서 실천하며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선지순례, 자원봉사 등에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주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장경곤 부시장, 김백기 행정지원국장 등을 비롯해 5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다. 대구=손법천 지사장

게시판

알림

▲사이버법당 '자비도량' 개설=법회연구원은 네티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법당 '자비도량'을 개설했다. 자비도량의 주소는 'www.jabidj.pe.kr'이며 법문, 상당자료, 의식강의, 문화강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02)722-2920

▲간병인 파견 프로그램 운영=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간병인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뜨는 집 허준 간병인회'라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시설, 병원, 가정 등의 신청을 받아 간병인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7월 31일까지 무료다. (02)385-8724

강좌

▲비교종교학 및 불교교리 강좌=국청회는 7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비교종교학 강좌를, 7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불교교리 강좌를 각각 마련한다. 두 강좌의 진행은 최종석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맡았다. (02)730-1249

▲불전국역연구원 가을학기=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은 2001년 가을학기 강좌를 개설했다.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에는 화엄학특강, 조사어록, 서장, 유식 등 4과목이 개설됐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031)980-7803

▲이병윤씨 불교사진강좌=불교문화센터는 불교 사진작가 이병윤 씨의 '불교사진강좌'를 개설했다. 8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이론과 실기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02)703-0108

모집

▲장애인 구직희망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직업훈련생 및 구직희망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희망자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02)989-4218

▲독거노인 가사 보조=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의 생활을 보조할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주 1회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보조, 밑반찬 조리 등과 같은 가사를 지원하는 것. 소정의 봉사료가 지급된다. (031)455-0551

▲가정봉사원 교육과정=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봉사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60세. (051)628-6737

▲불교문화기행 참가자=불교신행연구원은 제55회 불교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변산반도의 명찰 내소사와 개암사를 둘러볼 이번 불교문화기행의 접수 마감은 6월 26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만원. (02)587-6613

이전

▲해인승가대동문회 이전=해인승가대동문회(회장 세민)는 11일 사무실을 조계사 옆 상운중심 2층으로 이전했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번지. (02)720-811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인도 · 네팔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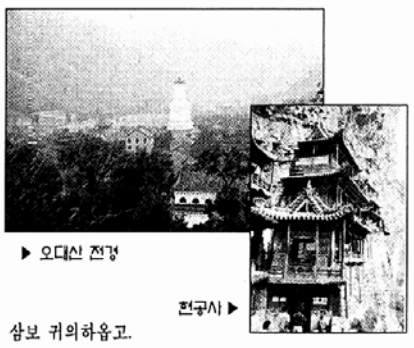
서울지하철 법우회

서울지하철법우회(회장 민병훈)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의 여정으로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떠난다. 인도의 스라바스티, 바라나시를 방문하고 네팔의 룸비니를 순례하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지도법사 종명스님(의정부 불암사 주지)을 비롯해 회원 및 그 가족 28명이 참여한다.

(주) 성산항공여행사 개업 16주년 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경비 : 69만원
■순례 기간 :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5일간)
■신청 기간 : 2001. 7월 15일까지



▶ 오대산 전경
현공사 ▶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청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운강석굴 ▲

■성지 순례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1박) / 운강석굴, 상,하 화엄서,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산사, 현통사, 탑원사, 라후사, 보살정,대문수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각사 태원 / 산서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투숙 -

포함사항 : 항공, 호텔, 입장료, 식사, 중국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 불 포 함 : 인천 공항세
· 구 비 서 류 : 여권/자택주소/전화번호
· 여권없는분 :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본 1매, 여권인지대 45,000

협 찬 : 중국 산서성여유국
후 원 : 오대산 상원사,무주안국사,해남 대둔사
영추사,본원정사,심곡사,관음정사,영산법화사

문의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 02) 720-0111
담당 : 이규술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 tour Love@kornet.net

▶ 오대산 전경
삼보 귀의하옵고.
10여 년 전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감동이 아직도 가슴 벅차게 남아있습니다.
첫 성지순례를 모셨던 그 정신으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덕 높으신 스님과 신심 있는 불자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이규술 합장 -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에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敎)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되고,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종교의 경험 안에서 '나' 또한 용해된다는 것을, 에고 또한 무(無)로 용해된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었는가?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의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성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그 갈망은, 한 여자의 몸을 향한 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향한,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두 권의 책과 함께 CD가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부록 :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Tantra: A Partnership in Meditation) CD



지시문대로 따라 하는 이 명상법은, 성(性) 그리고 관계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이며, 연인들을 교감(交感)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해서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샤, 의학 박사 디얀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한국어로 더빙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고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무르익은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해 준다(65분). ※세트 가격 18,000원

新 탄트라 오쇼 성에서 초의식까지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www.goldenflower.co.kr /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도서출판 황금꽃

17년째 영가 극락왕생 기도

신행현장

포항 대성사 청년회 '독경 봉사행'



◇포항 대성사 청년회원들이 영안실에서 상가독경을 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해 주고 있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오전 8시 포항시 대도동 현대스크린 사무실.

청년들의 발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10여 평 남짓한 사무실이 청년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은 다름 아닌 포항 대성사 청년회원들.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항상 바쁜 청년불자들이 사무실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

언뜻 보기에는 법회를 위한 모임도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한 청년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숙연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까닭은 기계면 용화사가 주최하는 6·25 참전용사 위령재에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기도를 올리기 위한 것. 이들은 위령재에 참석해 우렁찬 음성으로 참전용사를 위한 〈금강경〉 독송을 함께 했다. 이렇게 대성사청년회원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해 영가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고 있다.

5월 19일에도 대성사 신도회 고문의 빈소인 포항가톨릭병원 영안실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금강경〉을 목탁소리에 맞춰 경전을 독송했다. 그러자 떠들썩했던 빈소가 조용해지면서 저녁공양을 하고 있던 사람들, 소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 등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청년회원들의 독경을 따라 하며 영가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렸다.

특히 이날은 특별히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도 참석해 유가족과 함께 30여 분간 독경을 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유가족과 함께 금강경 독송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기도

이 자리에서 한 문상객은 "요즘 젊은이들은 보통 이런 자리를 꺼려하는데 청년 불자들이 이렇게 빈소를 찾아 문상을 하고 경전까지 읽어주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며 "요즘 청년 같지 않다"고 대견해 했다.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촌의 모내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성사 청년회가 '상가 독경'을 시작한 것은 지난 84년 창립하면서부터다. 작은 일이지만 성의를 다하는 고인의 청년회원들의 자비행은 지역 불교계에 잔잔한 귀감이 되고 있다.

17년 동안 회원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상가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상가독경은 갑작스레 이뤄진다. 보통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만큼 약속이나 회사일 관계로 빠지기 십상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17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회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25명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독경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높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가 조문과 천도 독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금은 신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 회원의 경우 승용차에 목탁과 경전을 싣고 다니며 주위에 초상이 나면 발벗고 나서서 독경을 할 정도다.

회장 김익수 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상가 독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유주무주고혼들을 위한 천도이자 결국 나를 위한 천도이기도 합니다"며 "불자들이 서로의 애 경사에 참여해 슬픔은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성락 포항 지사장

생활속의 불교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라

사랑 중에 가장 지고한 사랑은 불·보살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워낙 크고 넓어 대자대비요 일체 만물을 한 몸으로 보기에 동체대비이다.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그에 버금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기만 할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인내하는 사랑이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시한다. 아낌없이 주는 삶, 누구라도 감싸는 삶을 말할라치면 그건 성현의 몫이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늘 불안·공포·고통·긴장에 시달리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부모가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주는 모정(母情)을 닮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엔 평안과 만족이 있다. 거기엔 미움이나 적의(敵意)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억압·공격·학대·부정 따위가 따르지 않는다. 비방이나 기망 질시도 없다. 아니,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봄 볕에 쌓인 눈이 그만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린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사랑하면 그도 내게 그렇게 한다. 꽃이나 미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내게 응해 올리가 없다. 고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 누구라도 감싸고 안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자석과 자석이 감응하듯이, 물과 우유가 잘 뒤섞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고 서로를 찾는다. 마음의 화답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고로 사랑의 마음을 방사(放射)하라.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내라. 넓힐 수 있는데 까지 넓혀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정화할 수 없고 바꿀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한국불교 잘되고 못되고 인재양성에 달려있어요"



혜철스님 상주 황령사 주지

부처님 말씀에 양마는 채찍 그림자만 보고 달리며 중마는 채찍이 살결에 닿아야 달리며 소마는 채찍을 휘두르고 소리를 치고 주인이 눈을 부라려야 겨우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최첨단 정보과학의 시대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 때, 소달구지를 타고 양반 상놈 따지고 자자손손 부귀영화의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한 폭의 동양화 같고 한편의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줄 알았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과거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이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몇 배 사람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봉사나 보시만 강조 절 밖으로 내모는 것

그렇다고 지금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중에 앉아 사찰을 찾아오는 불자들의 입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시대상을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불교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불사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해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인재불사에 대한 사찰이나 교계 단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정년퇴임은 고사하고 10여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이나 복지 등에 대한 혜택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나 보시만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지나 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종무원까지 그만둬야 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재양성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볼교 밖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재들이 불교계로 올 까닭이 없지요. 이것이 시대적 변화에 비해 불교는 늘 뒤떨어져 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준엄한 법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과 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먼저 지도자는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훌륭한 인재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속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개성이 없어 윗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장이 오게 됩니다.

그 마장을 잘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준엄한 법도는 다시 말하자면 상과 벌입니다. 상과 벌이 없다면 아무리 좋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훌륭한 지도자는 사장이 되고, 범용자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릴 줄 아는 양마와 같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재양성이 구호뿐이 아니라 각 사찰이나 단체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를 등용시키는 문을 넓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행캘린더

6월 21일 (목)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정기법회=도시철도공사 법우회는 오후 7시 30분 서울 답십리 관음정사에서 주지 경덕스님을 법사로 6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31)820-7700

6월 22일 (금)

■교불련 조찬모임=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오전 7시 롯데호텔 36층 피콕홀에서 조계종 정대스님과 부장급 스님들을 초청, 교불련 회원들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갖는다.(02)720-6618

6월 23일 (토)

■공불련 성지순례법회=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4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전국 50여 기관 불자회 회원들이 동참하는 제2회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02)721-9198

■부처님 나라 합동수계법회=유니텔불교동우회 부처님 나라는 24일까지 부산 해운정사에서 전국 단위의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3479-4508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수=조계종 포교원은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해인사 홍제암 및 가야산 내 암자에서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및 관광가이드 연합연수를 실시한다.(02)720-7060

■이전 및 개원법회=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월운스님(봉선사 조실)를 초청해 '이전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02)445-8484

6월 24일 (일)

■대불어 연꽃문화제=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는 범어사에서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제1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051)818-7187

■성불회 산사음악회=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는 오후 7시 20분 태전사 경내에서 성불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음으로 부르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042)821-2546

6월25일 (월)

■금강회 정기법회=경산조폐창 금강회는 오후 7시 30분 경북 경산시 금강원에서 주지 증악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053)810-0272

6월 27일 (수)

■포교원 '산사 만남'=조계종 포교원은 새벽 3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봉화 청량사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 불교 학자들을 초청해 '산사의 만남'을 개최한다.(02)720-7060

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박태원 교수의 40

불교로 보는 인생

평소 특별한 기대로써 지켜보는 불사(佛事)가 있다. 15년 전부터 '고요한 소리' 가 진행하고 있는 남전대장경 번역 불사가 그것이다. 부처님의 육성을 가장 원형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전대장경의 우리말 번역은 그 의미와 가치가 깊고 크다. '고요한 소리' 의 출범과 진행 과정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기에, 이 불사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체험적 정보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 법에 따라 무아적 태도로 불사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결례이므로 피하겠다.

경전 번역은 참으로 특수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불교 언어는 신앙의 계시 언어도 아니고 사변의 논리나 지식만도 아닌 수행 체득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불경 번역은 감동적인 신심만으로도 안되고 천재적인 머리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언어적 소양이나 불교 지식, 사변 이론적 깊이만으로는 곧 넘지 못할 벽에 맞닥뜨린다. 모든 불교 언어는 그 언어의 체험적 국면에 눈뜬 만큼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된다. 경전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經眼)을 갖추는 일은 이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경전 번역에 나서는 이들은 극히 조심스럽다. 그런 대로 만족할만한 번역을 하려면 어떤 준비와 축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기에 살얼음 밟듯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요한 소리' 인연은 경전 번역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또 몸에 새기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 불교계가 남전대장경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던 15년 전에, 정확하고도 심원한 문제 의식으로 남전대장경 번역 준비에 착수한 안목은 실로 경탄할만하다. 한국불교의 풍토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초기불교의 언어를, 일찍부터 탄탄하고도 주체적인 자세로 수행을 통해 깊이 음미해 온 분이 계셨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순전히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가꾸어 온 초기불교에 대한 수행의 안목과 깊이는 놀랍기만 하다. 남방불교의 전통적 안목 역시 조심스럽게 검토해 가는 주체적 태도는 초기불교 이해의 격을 달리하게 하고 있었다. 번역의 관건인 경안(經眼)을 여법(如法)하게 열어가고자 치열하게 수행하는 어른, 이 불사에 동참하고자 번역에 필요한 언어의 고급 소양을 위해 실로 장기간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익히며 고된 유학 생활을 감내하시는 또 한 분 스님의 특별한 원력, 소리소문 없이 이 불사에 다양하게 동참하며 경전 번역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고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의 모습은 한국불교의 한 저력이다.

이 '고요한 소리' 불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평소 필명이 널리 알려진 학승 한 분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남전대장경 번역을 선언하셨다. 학자 두 분을 연구원으로 하여 단기간에 번역해 내겠다는 것이었다. 평소 '고요한 소리' 불사 내용을 눈여겨보던 분이었는데, 자기 평생의 원력이었다고 말하며 역경불사를 천명하는 그 분의 태도가 느닷없다고 느껴졌다. 그 분은 얼마 안가 반려자 인연을 만나 세인들의 화제 속에 환속하였고, 요란하게 시작한 그 번역 불사도 유야무야 되었다.

의미있는 佛事

남전 대장경 우리말 번역

15년동안 신중하게 진행

혹 오해일지는 몰라도, 그 때 나는 불사를 둘러싼 명예욕과 그에 따른 졸속주의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해인사에 대불(大佛) 조성 불사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대불 불사는 아무래도 해인사의 품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으로 보인다. 합리적 비판 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대이다. 이 영리한 세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불성을 일깨우려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불사여야 한다. 발상과 태도, 진행 과정이 모두 진리다워야(如法) 한다. 더욱이 해인사는 부처님 법의 상징(法寶)이 아니던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열어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해인사는 이미 인류 모두의 소중한 보배이기에 더욱 그렇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결성

참불자의 길 결사

옛부터 불가에서는 수행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고, 불교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결사(結社)가 행해져 왔다. 종교사회 운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결사는 출가승단위주의 교단운영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같이 참여하는 결집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불교에서 결사운동은 교단이 미처 해내지 못했던 사원의 유지보수나 종교탄압에의 항거, 경제적 어려움 극복 등에 앞장 서 오면서 종교 운동을 주도했다.

결사운동은 중국 동진시대 혜원스님이 여산의 동림사에서 맺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무량수불을 모시고 서방정토 왕생을 위한 염불수행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후 혜원의 백련결사는 이상적인 결사운동의 전형적인 시원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통일기를 전후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결사운동이 점차 활발해져 왕실과 귀족의 지원에 의한 화엄결사가 조직되기도 하고,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에 바탕을 둔 염불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758년(경덕왕 17) 발징화상이 간성 건봉사에서 만일염불결사(萬日念佛結社)를 맺고 염불수행을 하다가 29년 만인 786년 31명이 인로왕 보살의 인도로 모두 육신등공(肉身騰空)하여 왕생한 것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결사의 효시다. 9세기 초에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순교하였던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한 결사가 조직된 바 있으며, 9세기 말에는 왕실에서 〈화엄경〉의 사경과 전독을 위한 화엄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2세기 후반의 결사운동은 화엄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개혁운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눌스님이 개창하여 뒤에 수선사(修禪寺)로 사액되었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천태종 요세스님의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이 두 결사는 기존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지방의 지식층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방불교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고, 아울러 불교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중국 백련결사 시초
지눌 정혜결사 대표적
최근 결사운동 이어져
사회변혁운동 성격도

결사운동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 파괴의 위기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96년 결성된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를 비롯해 동산반야회가 1998년 염불결사의 전통을 이은 염불만일회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생명존중의 불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적 대중결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비롯 선우도량 수련결사, 대원회의 대중결사, 전국불교신도회 정토결사, 생명나눔실천회의 100일결사, 도피안사 바라밀결사 등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염불만일회 결사대회.

이같은 결사 운동은 대중의 서원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환경등 제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행풍토를 쇄신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 신행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⑱

조대제에 대한 답서

낯선 곳은 익숙하게, 익숙한 곳은 낯설게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세간의 번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여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와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곳은 얕게 하시고 얕은 곳은 깊게 하시며,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십시오."

선의 체험이란, 근본자리에서 보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새로울 것이 조금도 없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색(色)과 상(相)의 세간(世間)만을 경험하며 그것에만 익숙해져 왔으므로 공(空)과 성(性)의 선(禪)은 낯설기만 한 것이다. 선은 전혀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선이 전혀 미지의 세계인 만큼 선을 직접 맛보기 위하여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는 것 역시 막막하기만 하다.

그리하여 간화(看話)니 묵조(默照)니 관법(觀法)이니 하는 여러 가지 방편과 수행의 과정이 제안되기도 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느 방법도 세간에서 학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방식처럼 분명하고 손쉬운 그런 방법은 없다. 왜냐 하면 세간의 일이란 이미 경험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추하고 학습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선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발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세간의 공부는 의도적인 노력(有爲行)을 통하여 일정한 과정만 거치면 성취될 수가 있으나, 선의 공부는 그런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의 공부란 무위행(無爲行)이기 때문이다.

무위행이기 때문에 선의 공부에 특정한 육체적 정신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공부를 그르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유위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두(話頭)의 참구(參究)가 그래도 가장 유위행에 빠질 위험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화두의 참구는 그저 가슴 속에 의문(疑問)을 품을 것을 요구할 뿐이고, 어떤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나 과정의 의무적 수행(遂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두 참구에도 유위행의 위험은 있다. 그것은 바로 화두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하려는 의도적 노력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화두가 타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무위행의 공부에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까? 무위행의 공부에서 힘을 얻는 원천은 믿음(信)이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에 관한 신뢰인가? 불교의 진리에 대한 신뢰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선의 체험에 대한 신뢰이며, 조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이며, 깨달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며, 자신에게 진리(佛性)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공부를 끌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즉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공부가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깊을수록 의문도 커지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알고자 하는 무의식 속의 갈망이 커지는 것이다. 의문이란 알고자 하는 갈망이며, 알고자 하는 갈망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에 비례하여 커지며, 이 갈망이 바로 선문을 두드려서 여는 힘이 된다.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말과,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서 반드시 여래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라는 말이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공부인은 모름지기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커다란 의문의 덩어리가 가슴 깊이 생겨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주 제 : 정진하는 교사, 참여하는 어린이

본회에서는 『정진하는 교사, 참여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을 습득하는 지도자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음

1. 일 시 : 불기 2545년 6월 23일(土) 오후2시 ~ 24일(日) 오후3시
2. 장 소 :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교통편 안내 ➡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하차(6번출구) 도보 5분
   일반버스 : 63-1, 63-2, 56-2, 65, 78, 69 (무역센타앞)
   21, 212, 300, 571-1 (봉은사 앞)
   좌석버스 : 64-1, 64, 933, 37 (봉은사 앞)
3. 교육내용 : 하하하 호호호 *^^*, 특강 1, 2 · 여름나라 게임장군, 우리모두 다같이 노래해 ♪ 신바람 레크댄스,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 지대방, 울라울라 체조시간 알록달록 풍선장식, 야단법석
4. 교육특징 : 이번 강습회는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게임, 찬불가, 레크댄스 강의를 분반수업합니다. 꼭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참 가 비 : 40,000원 (회원은 30,000원, 군종병은 20,000원)
6.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7. 문의 및 접수 : 02-738-7860 (代) (본회 사무국)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카페)
8.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포 교 원
불 교 레 크 리 에 이 션 협 회 장 정 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100명) · 주간반(50명) · 통신반(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무용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이렇게 들었다

가뭄 그리고 수해

하늘만 쳐다볼 일인가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언제든지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작은 재난을 대단치 않게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작은 물방울이 시간이 흐르면 큰 강물이 되듯이 작은 재난도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열반경>

최근 단비가 일부지역에 내렸지만 전국이 석 달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초비상이다. 논바닥이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 가고 있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8.7%가 바닥을 드러내며 평균 저수율도 50%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에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한강 3개, 낙동강 7개, 금강 1개, 섬진강 1개 등 모두 12개의 중소형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항상 재난이 생길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부의 레퍼토리다. 90년대말 정부는 물부족 현상에 대비해 영월 동강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 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댐건설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또다시 환경 단체의 반발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불투명할 지도 모른다. 또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댐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발생할 지도 모를 가뭄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우선은 평소 국민들이 물을 자원이라고 생각해 절약하고 재이용하는 수자원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는 안일하게 보내다가 막상 재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왜 미리 재난을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아난사사경>에 기록된 부처님 말씀은 유비무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즉 "세상에는 항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현명한 군주라면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떠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치산치수를 잘해 어떠한 사태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이와같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천재지변에 대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가뭄,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질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집중 폭우로 인한 수재에 시달리고 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하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방비책을 세워 큰 화를 막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김주일기자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 '비정상'

불자 세상보기

너도나도 다이어트
언론서 오히려 부추겨
매일 108배 어떨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온 대지를 적셨다. 세상을 더럽히는 온갖 먼지와 오물들의 정수리에도 아낌없는 물 세례로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메시지도 아끼지 않는다.

'전쟁'이란 엄청난 단어가 여기저기 남용되고 있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다이어트 열풍으로 그야말로 여성계와 매스컴이 난리다. 한 연예인이 날씬해지고자 자기의 몸에 메스를 들이대고 뛰고 달리고 한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야단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여성이라면 날씬한 몸매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분명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억지로 보다는 자연적으로 해야 인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와 반대로 인위적이고 요행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그 방법을 찾으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체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요법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해 보자 하는 사고 방식도 문제다. 무조건 살빼기를 권하는 광고나 패션쇼, 언론매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정상적일 정도로 마른 여성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품이나 인격을 다듬어 아름다운 향기를 피울 생각은 않고 오로지 외모나 몸매로만 세상과 부딪치려 하는지? 세월 흘러 늙음이 찾아 왔을 그 때는 텅 빈 가슴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사회 곳곳의,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누구의 지적처럼 외모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은 모르지만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며 위험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다이어트 관련시장은 해마자 급성장하여 지난해는 1조원 이상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고, 또 빼려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어느 선사의 말씀처럼 먹은 것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다이어트로 인해 드는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 뜨거운 열기로 잠시 우주의 모든 필요한 곳곳에 아무 대가없이 사랑을 쏟아붓고는 아름다운 노을 속으로 사라진다. 사람의 몸도 잠시 탱글거리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병에 대한 면역도 약해져 서서히 고향 찾아 본래의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살이 쪘다는 것은 물또는 지방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많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쏟아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루 15~30분 정도 투자하여 108배나 300배 정도 매일 아침 운동삼아 해보면 어떨까. 발이 지면에 많이 닿을수록 심장이 튼튼해져 혈기왕성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니 숲길이나 산속의 절을 찾아 걷는 것 역시 살도 빠지고 산림욕도 되어 심신이 편안해 질 것이다.



강문숙 시인

내면의 당당함을 키워 나간다면 뚱뚱하면 어떻고, 이름없는 패션을 입은들 어떠하겠는가.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다. 욕심을 줄이는 생활을 한다면 살이 찔 이유가 없다. "우리는 실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이 만들어 놓은 가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월트 리프만매스컴 이론가의 말을 상기하며 당당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

열린마당

승가대 안암학사 활용

비어있는 안암학사
총무원장 의중 '방향타'

중앙승가대가 김포학사로 이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옛 캠퍼스인 안암학사의 활용방안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종회 결의 기구인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가 종단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안을 지난 2월 내놓기는 했지만 중앙승가대 동문회 및 교계 일각에서는 중앙승가대 대학원 및 종단의 연수·교육시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사실상 총무원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전대책위 측의 생각과 중앙승가대 동문회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임대사업 통해 재정부담 덜자"



계성 스님 〈이전대책위 간사〉

우선 전제해 둘 것은 이것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전대책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는 안암학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 지난 2월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총무원이 독단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논의를 통해 결정됐듯이 총무원 자무부 교육원 법인사무처 등의 협의 아래 임대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원이나 교육 연수공간 등 여러 가지 안암학사 활용 방안이 나왔고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전대책위는 현재 종단과 중앙승가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익 창출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김포학사 공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이나 남아있고, 김포학사 운영 경상비도 안암학사 때보다 10억 이상 늘어나 종단의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조계종 총무원 신청사 건립 문제도 남아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안암학사의 시설과 환경을 재정 수입처로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임대 기간이나 방법 및 입주 건물의 성격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시 심도깊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대학원이나 교육연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몇년간 벌여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학원이나 교육연수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시설도 개보수해야 하는 등 시설확보에 따른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종단의 재정상태로서는 사실상 무리일 수밖에 없다.

"대학원이나 불교문화원 개설"



원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안암학사의 위치나 환경을 고려할 때 중앙승가대학 대학원 건립이나 불교문화원을 개설해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승가대도 이제는 석·박사를 배출할 때가 됐고, 승가대학원 건립은 종단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불사가 될 것이다. 게다가 안암학사는 주위에 학교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주차시설도 잘 돼 있어 대학원을 건립하기에도 여건상 알맞다.

문화원을 개설하자는 것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는 의미다. 범패나 판소리, 탱화, 선무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적으로도 문화원이 들어서기에 딱 좋은 곳이고 적당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안암학사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불교계에서는 단 하나뿐인 보육교사교육원은 정원 200명에 50명 밖에 차지 않고 있다. 실습실과 도서관 등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인데, 문화원으로 활용하면 공간을 확보해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포교 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사업을 하자는 종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종단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를 전면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종단이 어렵다고 해서 수익사업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종단 교육이 그만큼 한 발 뒤떨어지게 된다.

안암학사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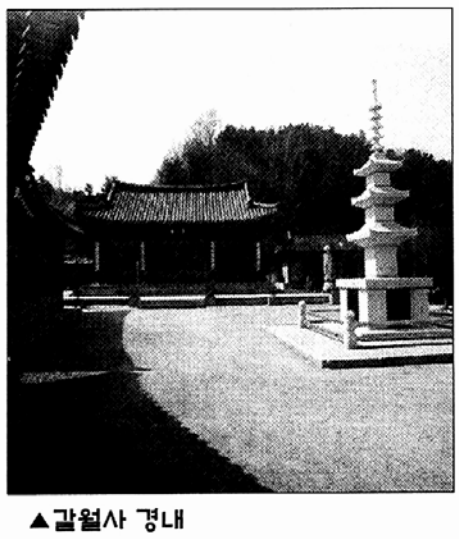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이전대책위가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쪽으로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학교법인 이사회가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실 이전대책위가 '임대' 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중앙승가대와 학교 총동문회, 조계종 교육원과 종단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았었다. 안암학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당초 학교 측은 대학원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제3대 총장에 취임한 종범스님은 "재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피력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대책위도 지난 2월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로 방향을 제시했지만 학교법인 이사회,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이사장인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수익창출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안암학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자비관)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정진관을 비롯해 기숙사 건물 등 6000여평의 규모로, 현재는 어산작법학교와 보육교사교육원, 승가원 법인사무처, 중앙승가대 동문회 등이 잔류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간은 4개월여가 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갈월사 영탑(靈搭)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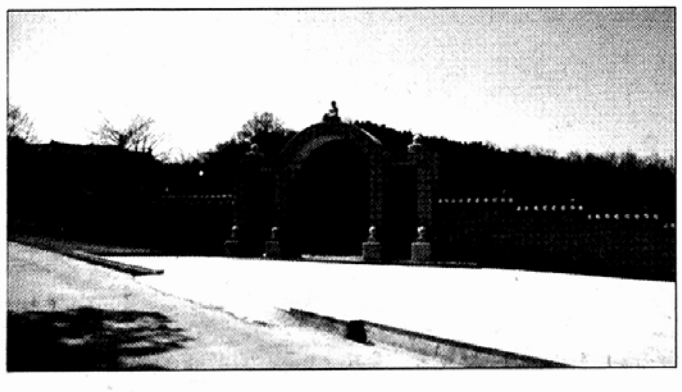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갈월사 경내

정문 ▼



조성된 영탑 ▼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사·부·대·중

지리산의 눈물



노귀남
〈협성대 강사 · 국문학〉

지난 답, 답궁 제단터에서 생명평화 민족화해를 위한 지리산 위령제가 있었다. 그 날, 근대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땅을 밟으며, 나는 비로소 이땅과 역사와 핏줄을 가슴으로 생각하였다. 전쟁 때 돌아가신 꽃다운 청춘의 큰아버지 위패를 모시면서, 내가 역사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음력 9월 9일이면 큰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니, 돌아가셨나 보다고 그저 그런 생각에, 애절한 추모의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막상, 위령제를 계기로 큰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함자도 몰라 고향집에 전화를 하고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아, 그랬구나.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최후를 맞았는지, 누가 그 시신을 거두어 피묻은 주검을 씻기기라도 했는지, 아니, 백골이 땅에 묻히기라도 했는지… 조카인 나마저 추억하지 않았던 한 청춘이, 이데올로기 갈등의 희생양이고, 운명이고, 그게 역사가 되어서 무심히 흘러 왔던가.

지리산 위령제는 민족의 슬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영혼들께, 이제 좌우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향해 가겠다는, 참회와 다짐을 담은 해원의 천도재였다. 빨치산으로 토벌대로 서로 쫓고 쫓기면서, 그 서슬에 무고한 양민들도 이리저리 몰이를 당하며, 산천은 피로 물들어 갔다. 그 한이 깊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전쟁으로서 평화협정도 이뤄지지 못한 마당에, 어찌 성급하게 화해와 상생이 되며 그 억울한 피가 씻기겠느냐며, 대립과 냉전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그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자는 말인지는 돌이켜 볼 문제이다. 그동안 전쟁에 희생된 영령들의 풀지 못한 한을 진정으로 위로한 적 있던가. 분단의 한을 뛰어넘을 진정한 역사적인 성찰이 있었던가.

위령제 내내 큰아버지 같은 영령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분단장벽은 마음의 벽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목탁소리

궁금한 청년불자 현황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공동으로 3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청년불교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불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청년불교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포교원과 대불청은 조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조사가 정확히 안됐다는 것이다. 물론 6명의 조사요원이 전화를 통해 한 달간 전국 청년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 어렵다. 또 정확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침체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감안한다면 그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과 대불청이 이번 조사 결과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또다른 이유도 바로 이런점 때문이다.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청년불교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기 싫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의 거부 이유에 대해 김규범 대불청 중앙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는 조계종 사찰에 예속된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정 조사된 것"이라며 "대불청 관할 전국 지회중에 빠진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사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대불청은 전국 각 지구 청년회장에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일임해 정확한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다시 재조사를 한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혹 그 결과가 발표하기 부끄럽더라도 솔직하게 결과를 드러내 청년불교의 현주소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자운·성철의 죽음을 곡(哭)한다"

특별기고

수경 스님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법보종찰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청동좌불 건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여년간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해온 수좌로서 최근 환경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는 수경스님이 '해인사 대불'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해인사에 세계 최대의 청동 석가모니 좌불상을 모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부처님 모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만 중생이 갈망하고 또 갈망해 마지 않는 최대의 경사이다. 〈불본행집경〉을 위시한 모든 경전에 보면 부처님 출현을 온 세상이 찬탄하며 기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경전상의 표현을 몇가지만 옮겨보자.

"삼라만상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만 생명이 환희용약했다. 봉사가 눈뜨고 앉은뱅이가 걸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고 고통의 중생이 해탈의 부처되는 길이 열렸다."

굳이 경전 말씀을 빌릴 것도 없이 부처님 출현은 꿈에도 그리는 우리 시대, 만 중생들의 절절한 바람이다.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대전환하는 일이요, 불행의 인생을 행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일이다. 어찌 너울너울 춤을 추며 환희찬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인성지에 '세계 최대' 청동부처님이 출현한다는데 여기저기에서 불상 모시는 일의 부당함에 대한 비난과 원성이 자자하다. 환희찬탄은 커녕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요란하다.

절집 밖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정치 또는 종교적 음모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며칠전에 있었던 스님들의 대화 한 토막을 옮겨 보는 것이 좋겠다.

"사자는 토끼 새끼를 낳지 않는다."

온갖 험하고 거친 내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핵심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영암, 자운, 성철 스님이 사자라면 당연히 그 후학들은 새끼 사자일 것이다. 진정 사자가 낳았다면 그 새끼가 사자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상식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 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토끼가 아니고선 생각도 할 수 없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의 내용으로 볼 때 큰 사자라고 믿어왔던 자운, 성철도 본래 경망하기 그지없는 토끼에 불과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아왔을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겠는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해인사에서 자운, 성철 스님의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자운, 성철 스님이 어떤 존재인가? 현대 한국불교에서 '계율' 하면 떠올리게 되는 분이 자운 대율사이다. 돈오돈수의 깃발을 높이 들어 보조선사를 천마외도라고 질타한 분이 성철 대선사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이요, 우리 시대의 스승이다. 필자는 은사 스님이 따로 계시지만 마음깊이 두 분을 법의 스승으로 모시고 이 길을 걸어왔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 회고해 보면 자운 큰스님께서는 계율을 스승 삼는 길만이 한국불교와 오늘의 수행자가 살 길이라고 고구정녕하게 타이르며 모범을 보이셨다. 성철 선사는 흙덩이를 좇는 개와 같은 바보가 되지 말고 사람을 좇는 눈푸른 납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두 분 스님은 우리의 가슴에 빛나는 등불로 자리잡고 있다.

그분들이 속물주의의 상징인 최대의 불상을 모시라는 유지(遺志)를 전하셨다니 너무나 당혹스럽다. 천조각 만조각 기운 누비와 검정고무신을 전재산으로 살아가셨던 성철 선사께서 불교의 세속화를 앞당기게 하는 물신주의적 유지를 남기셨다니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다. 해인사의 주장대로 그런 유지를 남긴 것이 사실이라면 자운과 성철은 처음부터 나의 스승일 수 없다. 뭇 중생들에게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 세속화의 유지를 남겼다면 자운, 성철이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오늘부터 우리 가슴 중심에 밝혀져 있던 자운, 성철이라는 이름의 등불을 내 팽개쳐야 한다. 우리시대의 고승으로 모셨던 자운과 성철이라는 이름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 세상의 비판과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스님의 유지에 따른 불사라는 명분과 논리로 불사를 진행하는 자들도 흙덩이를 좇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한국불교에서 해인사가 어떤 곳인가?

민족의 역사속에서 해인사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현실적으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총림이다. 수많은 수행납자들을 배출시킨 수행자들의 그리운 고향이다. 민족적 자부와 긍지의 근간인 문화전통의 보고이다. 해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불교 모습이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해인사를 보면 한국불교가 보인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마지막 보루요, 희망이다. 해인사는 결코 그곳에 뿌리를 둔 몇몇 문중의 절이 될 수 없다. 그곳의 재적 승려나 대중들에 의해 함부로 취급되어도 괜찮은 절이 아니다. 모든 불교인들의 고향이요, 민족의 성지인 해인사가 속물주의의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다. 한국불교의 마지막 보루요, 희망인 해인사가 '최고', '최대'를 좇는 속(俗)스러운 도량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좌시한다면 그들은 이미 불교인이 아니다.

대중의 불신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불사는 이미 불사라고 할 수 없다. 유지를 운운하며 스승을 욕되게 하고, 중생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후학들의 도리가 아니다.

일찍이 우리들은 자운, 성철 큰스님으로부터 부처님 법대로 해야한다고 배웠다. 그분들로부터 종도는 종지를 받들고 따라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으로 볼 때 부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조가 이미 불조가 아니요, 스승은 이미 스승이 아님을 뜻한다. 종지를 받들고 따르지 않으면 종정도 이미 종정이 아니요, 방장도 이미 방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살불살조의 정신을 따르라고 하신 자운, 성철 큰스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최고의 해인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불교 세속화의 상징물인 최고 최대의 등상불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세계 유일무이의 고려대장경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창조적인 가꿈으로 눈을 돌리기 바란다.

둘째, 해인사를 세계 최고 수행도량으로 가꾸고자 하는 충정이라면 인류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물량제일주의를 부채질하는 최고 최대의 등상불 불사가 아니라 계율과 수행과 정법으로 세계 최고의 도량이 되도록 마음 쓸 일이다.

셋째, 진정 국운과 민족 화합과 국민 평화를 염원하는 불사를 하고자 한다면, 사부대중과 국민대중의 비난과 원망과 저항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불사가 되도록 하는데 착안함이 옳다.

넷째, 창건이래의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중생들의 무명을 깨달음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고 하신 부처님 유언에도 어긋나고, 외형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한 종지정신에도 맞지 않고, 부처님 법대로를 강조하신 자운, 성철 큰스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등상불 불사가 아니라, 계율로써 스승을 삼고 살불살조의 수행가풍을 살리는 불사에 집중해야 진정 해인사 답다고 할수 있다.

해인성지에 최대불상
자운 · 성철 큰스님 유지라면
우리시대의 스승이란 말
천부당 만부당하다

고려대장경 모신 성지
등상불 불사가 아니고
살불살조의 수행가풍
살리는 불사에 집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인사는 그 산중의 몇몇 문중과 현재 대중들만의 것이 아니고 종단 사부대중의 절이요, 국민의 도량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몇 해전 성철스님 사리탑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때부터 해인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하는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무기력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해인사 현재 대중들의 문제의식과 태도이다. 해인성지를 물량주의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해인사 재적 승려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정 수행도량 해인사를 세속화의 중심지로 타락시키고 있는데, 선방수좌들이 무겁게 침묵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산중이 무너지고 도량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잘 지키고 잘 치료하고, 가꾸어 갈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다. 만일 현재 대중들과 재적 승려들이 지금과 같은 무책임과 죽은 침묵으로 무사 안일하게 처신한다면 종도와 국민들이 나서서 조직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부질없는 상처를 남기고 혼란을 자초하는 소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이 난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慈悲하시고 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이시다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西翁 謹書

■ 추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⑬

날씨가 점점 더워오니 오늘은 시원한 산사의 계곡물을 떠올리면서 예불 풍경을 그려보기로 하자.

"원차종성변법계 철위유암실개명…십조구만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대방광불화엄경 악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새벽종송에서 항상 지송되어 오는 화엄경 제1의 사구게이다. 낭랑한 새벽 종소리에 게송이 실려오니, 수행인들이 사는 산사의 새벽풍경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인댄 應觀法界性에 一切唯心造니라) /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譬如隨意珠 能現一切色 無色而現色 諸佛亦如是)"

이 부분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60권 화엄에서는 '심조제여래(心造諸如來)'라 하고 있다. '마음이 부처님을 탄생시킨다'는 뜻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란 어쩌면 너무 평범한 듯한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은 연기즉공(緣起卽空)의 인식론과 연결되어 불교의 유심론적 중도사상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금언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법구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하였다.

이제 제4회 설법의 중심인 십행품(十行品) 제21의 게송을 음미할 차례이다. 십행이란 '보살의 열 가지 행'을 말한 것이니, 공덕림 보살이 선사유(善思惟) 삼매에 들어가 여러 부처님이 가피하시는 지혜를 받들고, 삼매에서 일어나 먼저 장행으로 말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깊고 깊음을 알며,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고, 불법과 세간법이 섞이지 아니하며 또 차별도 없음을 이해하나니, 법계의 자체 성품이 평등하면 삼세에 두루 들어감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니라.(…佛法이 不異世間法하고 世間法이 不異佛法하며 佛法世間法이 無有雜亂하고 亦無差別하며 了知法界가 體性平等하야 普入三世하니라)"

이어서 게송을 보자.

"중생들의 근성이 같지도 않고 욕망과 이해들도 제각기 차별 가지가지 세계를 밝게 아나니 널리 들어 간 이가 이 길 행하네.(了知衆生根不同과 欲解無量各差別하며 種種諸界皆明達하니 此普入者行斯道로다) /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수효가 그지없건만 한 생각도 피로한 마음 없나니 즐거워하는 이가 이 길 행하네.(十方世界無量刹 悉往受生無有數 未曾一念生疲厭 彼歡喜者行斯道)"

〈육조단경〉 반야 제2에 말하였다.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떠나서 깨달을 수 없나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리.(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

위의 장항에 말한 정신이 단경에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간에 살면서도 불법을 제대로 닦으면 인도의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거사처럼 살 수 있지만 출세간에 살면서도 정진하지 않는다면 제바달다나 선성비구처럼 많은 죄업만 짓게 된다고 경계하신 말씀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야마계찬품에서부터 '일체유심조'로 대변되는 게송들을 음미해 보았다. 가끔 보면 출가의 노정에서 함께 출가한 행자도반이 몇 십 년을 지나 만나보면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초발심의 마음자세가 수행자의 평생을 좌우하는 까닭도 모두 마음먹기 달린 때문이 아닐까!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만법이 마음으로 된 줄 보라

초발심 자세가 수행자 평생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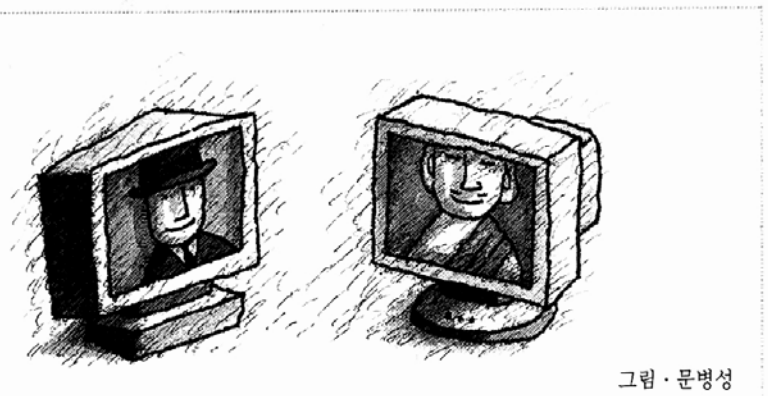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정보소외' 더 큰 문명위기

불교와 과학 〈32〉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말한다. 정보사회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현상을 이르는 것인지 불분명하긴 하지만, 우리 삶의 양식과 사회 구조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뉴미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정보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지식의 영역을 확장시켜 놓았으며, 과거 전문가 집단만이 소유했던 지식의 빗장을 대중에게도 열어 놓아 지식의 공유를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비대면의 관계를 통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보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수합방식을 뜻할 때가 더 많다. 급격한 산업화가 낳은 인구 과밀화와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의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많은 지식을 개인의 관심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종합하는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화에 따른 지식의 의미나 지식의 양상이 아니라, 정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정보의 특성을 어떤 집단이 가장 크게 자기의 이익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살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보사회 속에서 정말로 대중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 전문가 집단인가, 정보 마니아들인가, 혹은 국가기관인가?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집단보다 오히려 기업집단에서 정보의 특성을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상품의 소비영역이 넓어짐으로써 상업화 전략이 정보의 특성을 규정하는, 왜곡된 정보의 신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 광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의 지적 재산권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글 도메인 확장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누리고 있는 장기적 이윤창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화의 소산인 컴퓨터는 경상매체와 통신 수단의 발전 등에 업혀 복합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상업주의의 칼자루를 만들어 놓았다. 그 칼자루를 누구든지 쥘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 그 칼자루는 산업자본이 독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보의 기능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내적인 문제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정보 외적인 사회 · 문화 · 과학 · 철학 · 정치 등의 분야에 걸친 총체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정보시대랍시고 멀티미디어나 컴퓨터산업 혹은 영상산업 등의 산업화에 눈이 멀어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정보사회의 방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잘못된 오해와 주입된 선입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소유자는 없다고들 말한다. 분명 인터넷은 폐쇄된 통신망과 달리 특정한 주관 시행자가 없다.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인터넷은 소유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기업자본의 상혼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이비엠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80년대까지 불법복제를 눈감고 있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적 재산권 주장을 강하게 들고 나와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10년간이나 불법복제를 눈감아 오면서 세계 시장은 어느덧 그들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이제는 그들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상의 독과점 지배가 구축됐다. 결국 그들의 고도 전략의 결과는 이미 특정기업의 개인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상업화의 극치로 귀결되었다.

초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소외의 문제가 커다란 문명위기로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기계에 의한 소외가 아닌 정보에 의한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제국주의의 길들이기를 경계해야 할 때다.

불교는 현대화된 정보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한 삶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전통 동양종교 혹은 과거의 동양사상이나 철학의 한 구석으로 밀려 나서는 안 된다. 정보에 의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나침반을 보임으로써, 종교와 과학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 불교의 모습이 다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와 불교

산업자본 정보독점 대중혜택은 적어

불교가 정보사회 삶의 방향 제시를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 sangji.ac.kr

네티즌 신도 10억여명 종교문화 신조류 뜬다

지구촌 불교 / 디지털 신자 증가

기술혁명이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정보통신 및 산업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스탠다드닷컴(Standard.com)'은 5월 30일 바르나 조사 보고서(Barna Research report)를 인용해 "10억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 혹은 믿음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닷컴에 따르면 종교 관련 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는 네티즌들은 실생활보다는 가상공간, 즉 온-라인(On-Line) 상의 수행, 토론, 의식 등의 종교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신앙 형태와 비교해 지금의 종교적인 네티즌들의 신앙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스탠다드닷컴은 바르나 조사 보고서의 표현을 빌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개인적인 종교적 믿음을 키우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



◇본사가 신행정보 고승법어, 불교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개설한 부다피아(buddhapia.com) 초기화면.

인터넷 공간서 예불 · 토론 등 신앙생활

기독교 - 불교 - 유대교 順 가상사원 운영

바르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기독교계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의 경우 온 오프-라인(On Off-Line) 양쪽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만여 개를 웃돌 정도다.

이는 자신이나 친구, 친지 등이 살고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를 가상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뒤를 불교와 유대교가 잇고 있지만, 기독교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만 사찰이나 예배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스탠다드닷컴은 "현실 세계의 사원이 온-라인 상의 예배나 예불의 장소를 개설할 때, 가상공간에만 그것을 개설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가 상주해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종교 성향이 짙은 네티즌들은 정기적인 신앙 및 신행 활동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닷컴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많은 수의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사이트는 방문자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적잖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복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타니티닷컴(Christianity.com)의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디벤포트 씨는 "종교적인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사이트에서 종교 생활을 하겠지만, 상업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에서 네티즌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녹용홍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급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여름산사엔 '忘暑의 지혜' 살아있다

울력으로 구슬땀 참선으로 더위쫓고 수행자에겐 오히려 가행 정진의 계절

• 오는 여름 이기려면… •

여름 산사엔 '망서(忘暑)의 지혜'가 살아있다. 우선 건물 배치 자체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가운데 중정(中庭)이라는 마당을 중심으로 네 면을 건물이 둘러싸는 배치 방식은 종교적 의미 외에도 그 자체가 냉난방 시설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햇빛을 잘 받고 여름에는 햇빛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가운데 개방된 누각을 통해 바람이 통하게 하는 개방형 구조다.

우리 전통 건축양식의 본보기인 절 건물은, 꼭 필요한 곳은 벽으로 막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를 문이나 창으로 막는다. 평상시 이 문들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벽 역할을 한다. 하지만 들쇠에 올려져 다 열렸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 어느새 벽은 없어지고 바닥과 천장만이 남아 사방을 관통하는 공간의 흐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사찰 건물은 자연을 최대한 수용한다.

사찰의 당우엔 햇빛 조절 기능을 하는 장치도 숨어 있다. 바로 처마다. 태양은 여름에 높이 뜨고 겨울에는 비스듬히 쪼이는데, 이 중간 각도에 차양을 내게 되면 여름의 더운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엔 따뜻한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여름은 수행자들에게 있어 가행정진하는 계절이다. 지금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 통도사 등 5대 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은 하안거 결제중이다. 이번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5곳, 비구선원 48곳, 비구니선원 30곳,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1700여 명의 납자들이 방부를 들였다. 화두일념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은 선방 스님들에게 더위가 끼어들 틈은 없다. 그래서 그 모습은 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산사의 하루일과는 여름이라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새벽예불 도량석에 따라 시작되는 하루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변함없고, '일부작 일불식(日不作 日不食)'이라는 백장 청규에 따라 행해지는 울력도 덥다고 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꼭 걸어 잠근 문을 열어 놓고, 먹는 음식을 조금 달리할 뿐, 구도의 길을 나선 수행자의 하루에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는 게 오히려 부질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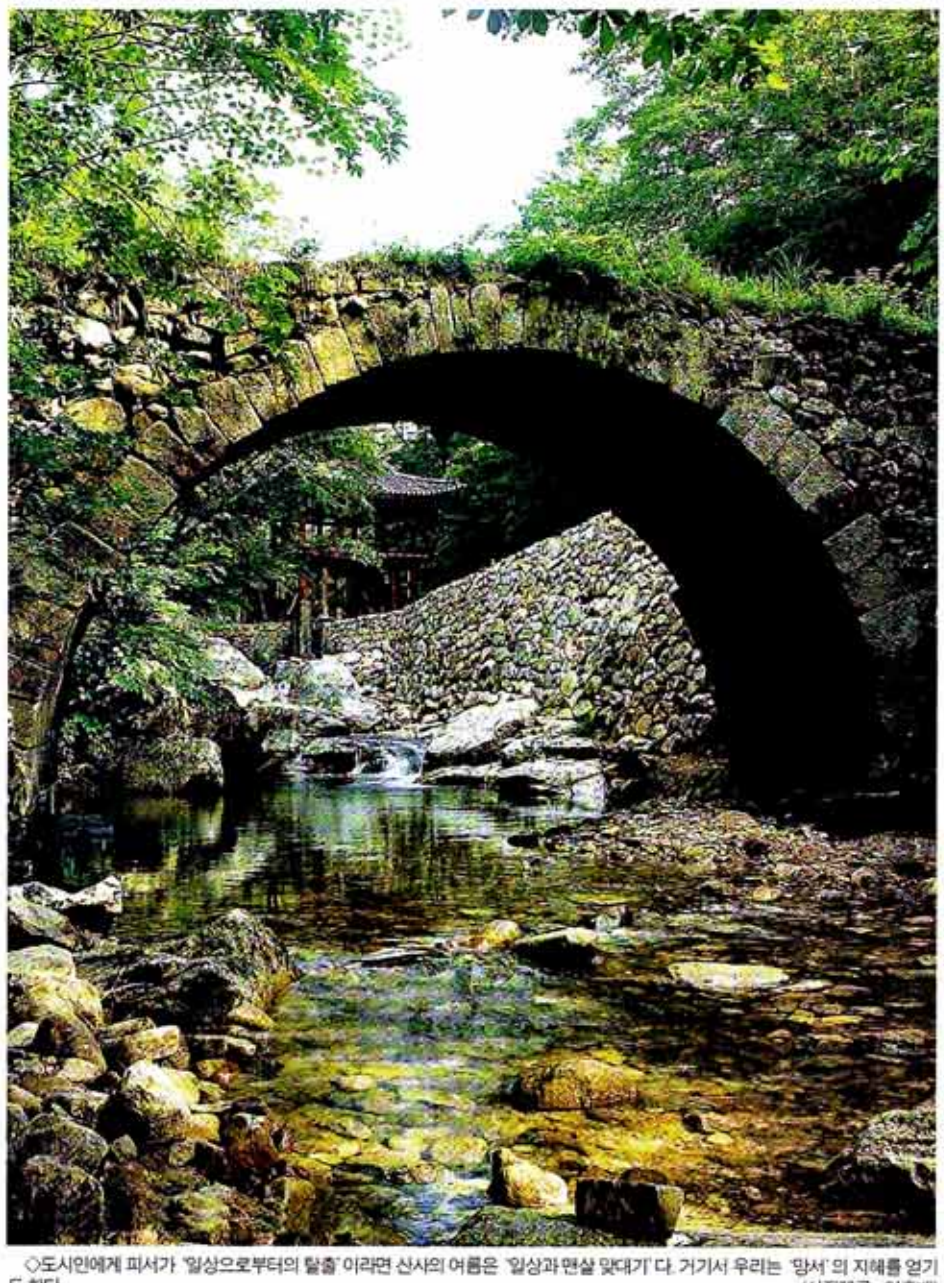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나 재가불자들에게나 무엇보다 방일(放逸)을 경계하셨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다. 〈선가귀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화두로 공부거리를 삼았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되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굶주린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어린 아기가 엄마를 떠올리듯 하라." 그래야 반드시 꿰뚫어 볼 때가 있을 것이라 했다.

어디 화두 공부뿐이랴. 모름지기 수행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을 때, 일거수일투족이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더운 여름의 초입, 무엇보다 간곡하게 불방일(不放逸)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때다.

도시인들에게 '피서(避暑)'는 곧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하지만 지난 날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위를 피해 갈 곳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까지 일상으로 끌어안아 잊어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듬어 안음으로써 더위를 잊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더위를 이기는 '망서(忘暑)'의 지혜를 부릴 줄도 알았다. 그래서 더위를 쫓는 참 멋은 '피서(避暑)'가 아니라 '망서'에 있고 '망서'는 곧 '일상과 맨살 맞대기'인 것이다. 산사의 여름나기에서, 그것을 배운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도시인에게 피서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면 산사의 여름은 '일상과 맨살 맞대기'다. 거기서 우리는 '망서'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사진제공=이홍배)



◇산사의 하루가 여름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울력과 참선을 통해 오히려 가행정진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 (사진제공=이홍배)

• 절에서 배우는 여름음식 •

예나 지금이나 사찰의 살림살이는 문명의 이기를 최소화한다.

음식만 하더라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끼니때마다 준비해야 하고 반찬 수는 적되 영양은 골고루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며 과식을 금하고 육식을 절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치나 장아찌를 담궈 먹기도 하는 콩잎은 여름철 별미다.

〈금광명최승왕경〉 24제 병품에는 '봄에는 떫고 뜨겁고 매운 것을 먹고, 여름에는 미끈미끈하고 뜨겁고 짜고 신 것을 먹으며, 가을에는 차고 달고 미끈미끈한 것을, 겨울에는 시고 떫고 미끈미끈하고 단 것을 먹어라'는 말이 나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건강을 위해서는 제철음식을 먹으라고 강조하셨다.

깻잎 · 냉채 '계절별미'

음식 남기지 않을만큼

과식 금하고 육식 절제

여름에는 식물이 그 영양분을 아직 뿌리에 저장하지 못하고 잎에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상추, 시금치 등 잎채소를 부식으로 많이 먹는다. 채소라고 무턱대고 먹는 것은 아니다. 과 마늘 달래 부추 무릇 등 냄새가 심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금한다. 고기를 섭취하지 않아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산과 밭의 고기로 일컬어지는 버섯과 콩에서 얻는다.



◇매실은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는데 그만이다.

더위를 타기 쉬운 여름엔 특히 늙은 오이를 권할만하다. 껍질이 누렇게 익을 때까지 놔두었다가 늦여름에 먹는 늙은 오이는 껍질을 벗겨 고추장에 무쳐 먹는 게 일반적이다. 오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찬 성질이 있어 목이 마르고 목구멍이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여름철에 더위 먹었을 때 좋다. 특히 더위를 먹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 늙은 오이의 씨 부분만 긁어내고, 즙을 내어 마시면 금방 가라앉는다고 한다.

초여름쯤 시장에 풍성하게 나오는 매실은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는데도 그만이다.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주는 매실은 늘 피곤한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 특히 좋다. 게다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칼슘 부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매실을 먹게 되면 체액이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몸속의 산성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칼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세채의 떠나는

선·식·기·행



뽕잎차

고혈압 · 동맥경화에 큰 도움

935년 신라의 금성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바마마. 한 나라의 존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충신 의사(義士)와 상의하여 항전하여야 하옵니다. 어찌 천년의 종묘사직을 쉽게 내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려는 순간이었다. 경순왕은 두통으로 태자와 대신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전날 만났던 동자승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경순왕은 장차 신라를 어찌해야 할지 문수보살에게 계시를 받기 위해 울산 태화사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다.

경순왕은 지금의 통도사가 있는 영취산으로 기도처를 옮기기 위해 태화강 나루를 막 건너려다 동자승을 만났던 것이다. 그 때 동자승은 "소승이 대왕의 가는 길을 돕겠습니다"면서 잘 익은 오디를 두 손으로 바치는 게 아닌가. 대왕이 달콤한 오디를 입안에 머금은 순간, 큰 소리가 울려왔다. "왕은 돌아가시오." 깜짝 놀라 앞을 보니 동자승은 온데 간 데 없고 뽕나무 고목에 우거져있던 뽕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는 오디가 잔뜩 붙어있었다.

그 때가 늦가을도 깊은 11월이었다. 낙엽이 떨어진지도 오래된 그 계절에 때도 아닌 오디라니. 왕은 당황하여 동자승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경순왕은 알았다. '문수보살이 신라를 버리시는구나!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 때 대왕 앞에서 동자승이 사라진 곳이 지금의 울산대학교가 있는 울산시 무거동(無去洞)이다. 그 후 태화사에서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11월 늦은 가을에 오디가 열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뽕잎 30g, 맑은 물 2컵

요리법 산뽕잎, 돌뽕잎, 뭉고뽕 잎은 늦은 가을 서리가 내린 다음, 가지 째 말린 다음 차로 먹는 게 좋고, 그 외의 일반 뽕잎은 단오를 전후해서 연한 잎을 그늘에 말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우려내는 것이 좋다.

효능 ①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과 심신이 불안할 때 큰 도움을 준다

② 또, 비만 치료에는 뽕나무가지가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각종 두통에도 아주 좋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청매선사 '十二覺時'

청매 선사(靑梅禪師 · 1548~1623)는 선조25(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으로 3년 동안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맞섰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선사는 전쟁으로 인하여 불에 탄 가람과 땅에 떨어진 승풍을 진작시키고자 깊은 고뇌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선사는 크게 발심하고 전남 부안 아차봉 마천대 기슭에 월명암을 짓고 목숨을 던진 수행에 들었다. 선사가 주석한 선실의 이름도 청매당(靑梅堂)이라 붙였다. 매서운 추위 속에 피어나는 매화와 같이 고고한 깨침을 얻기 위함이었다. 선사의 수행의 요체는 염(念), 지(知), 각(覺)이다.

염(念)이란? 주(主)에 반연하는 염이고,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겨냥의 염이고, 대상에 굳게 주립하는 주(住)의 염이며, 지(知)의 염이며, 억념(憶念)이다.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네.
깨달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깨달음이라 이름하리요.

무념(無念)

如以念念念
여이념념념
念念非眞念
념념비진념
將眞治妄念
장진치망념
未苦無一念
미고무일념

만일 생각으로써 생각을 생각한다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참다운 생각이 아니니
참다운 생각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면

念觀은 대상을 따르지 않는 지혜

'念 · 知 · 覺'의 깨달음 체계 구축

선사는 이러한 억념의 불망실(不忘失)인 유(有), 무(無), 단(斷), 상(常)에 뜻을 둔 주객차별(主客差別:사사(事事)가 무애(無碍)인 법계(法界)의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밝은 거울에 갖가지 형상이 비칠 때, 거울은 대상을 분별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거울 속에 나타난 형상을 소유하지도 않으면서, 갖가지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의 수행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행에서 얻어진 첫 번째 깨달음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십이각시(十二覺時)

覺非覺非覺
각비각비각
覺無覺覺覺
각무각각각
覺覺非覺覺
각각비각각
豈獨名眞覺
기독명진각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괴로움 일어나기 전처럼 한 생각도 없다네.

선사의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는 교학선(敎學禪)이였다 조선조 선종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선사의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거울이 대상을 분명히 비추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처럼, 도거(掉擧)나 혼침(惛沈)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선사의 깨침은 "염(念)은 관(觀)하는 지혜라고 설하고 있다." 염관(念觀)은 어떠한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즉, 삼독심(三毒心)을 증장시키지 않는 지혜의 본바탕이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지(知)는 관(觀)을 만드는 알맹이라고 설했다. 지(知)는 적(寂)으로서 고요이며, 고요함마저 없는 빙륜(氷輪)이 되어 분별이 고요하여 고요함마저 알지 못할 때가 적(寂)이며, 이 적이 지를 비추(照)는 것이 관(觀)이며 모든 형상이 정념(正念)으로 관조(觀照)함이 깨달음이라고 설파하셨다. 염지각(念知覺)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구축해 낸 것이다.

설산스님

삼각산 정토사 주지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버리기"

"일제에 항거하던 건봉사 만해선사와 노주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뚝솟은 노송(老松)이다."

건봉사 강원과 오대산의 청량선원, 혜화전문학교를 같이 다니며 60년 정을 쌓아온 시인 영암스님은 설산스님의 면모를 노송으로 비유했다. 인사치레의 언사가 아니다. 빼앗긴 조국을 슬퍼하고 불교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정진했던 외우(畏友)를 바라보는 잔잔한 눈망울이다.

발가락을 자른 스님.

설산스님은 염불수행자이다. 그러나 염불수행자로서의 설산스님을 말하기 이전에 발가락 자른 스님으로 먼저 다가오기도 한다. 잘린 발가락으로 60여년을 절뚝거리며 걸어온 걸음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노송은 지금 몸이 아프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린다. 요즘은 어지간해선 바깥출입을 않는다. 네 개의 발가락이 없는 왼쪽 다리를 받쳐주던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나다니기도 쉽지 않아. 엉덩이 불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야 만다.

일제의 학병에 끌려갈 수 없다며 잘랐던 왼쪽 발가락 네 개. 오른쪽 다리로 성치 않는 다리를 받치며 지내왔는데, 그러다보니 오른쪽 다리마저 성하지 않다.

발가락을 자른 사연을 여쭈었지만, 옛날이야기라며 손을 내젓는다. 재차 여쭙자 그때의 일을 짤막하게 풀어놓는다.

"이제 걸단의 시간이 온 것이다. 신을 벗어버리고 왼쪽 발끝을 선로 위에 얹어놓았다. 잠시 후 기적소리가 들려왔고, 칼로 손을 벤 것처럼 전신이 찌릿했다. 기차는 경성역 구내를 벗어나 멀어졌다.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다." 1944년 12월 29일 0시10분쯤이었다.

일제는 소위 대동아전쟁 막바지에 다다르자 조선의 청년들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징용을 피하기 위해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찍이 결혼을 하든가, 깊은 산중으로 몸을 피하는 일이 많았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승려로서 결혼은 택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숨고 싶지도 않았다. 자해의 길을 택했다. 어떤 면에서 극단의 방법은 순결성을 상징하기 도 하는 것 아닌가.

설산스님이 발가락을 자르기 하루 전 학병과 관련해 큰 소동이 있었다. 작가 한운사의 회고이다.

1943년 12월 말께, 우리는 경성제대 교정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민관으로 갔다. 소이소 총독이 연 장행회(壯行會)라는 것이 열리고 있었다. 소이소 총독이 한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벌떡 일어서서 날카롭게 물었다.

"총독은 우리가 출정한 뒤 조선 2천5백만명의 장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

"우와-!" 엄청난 소리가 터질 줄 알았다. 아래층에서는 동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장내는 고요했다. 소이소는 유연히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황국신민으로서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일제 학병징집 거부
열차 바퀴에 발 넣어
발가락 4개 잘라
결연한 의지 표시

장행회는 중단되고 나는 헌병과 경찰에 끌려갔다. 그 날 밤, 흥분한 학생들은 총독관저로 몰려가고 도처에서 거친 행동을 한 모양이다. 그 안에 설산이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발가락을 잘랐다. 죽어도 너희들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사표시였다.

문경 의병장 박영발 선생의 손자, 일찍이 만해스님의 기개를, 무릎꿇고 배웠던 설산스님에게 학병 지원은 조상과 불교와 조선을 욕되게 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설산스님이 머리를 깎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학원에서 만해스님을 가까이 뵈었다. 이때의 일화는 독립운동가 만해스님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일을 설산스님은 〈뚜껑없는 조선 역사책〉에 남겨두었다.

온사스님(의산스님)과 함께 안국동 선학원에 가니 만해스님은 마침 점심공양을 남전스님과 겸상으로 받고 계셨다. 은사스님과 나를 위한 겸상이 들어왔다. 나는 밥그릇을 상 아래 내려놓고 주발 뚜껑에 반찬을 몇 가지 옮겨놓고 약간 돌아앉아 먹었다. 공양이 끝난 다음 차를 마시는데, 남전스님이 골난 사람처럼 일어서서 획 나갔다. 은사스님이 차 드시기를 권했으나 대답도 없이 자기 방으로 휑하니 가버렸다.

"어린 사미인 준용이만도 못한 비구로군." 만해스님의 말씀이다.

나중에서야 그 때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남전스님이 어느 말 끝에 '일본양반'이라고 실언을 하신 모양이다. 그때 만해스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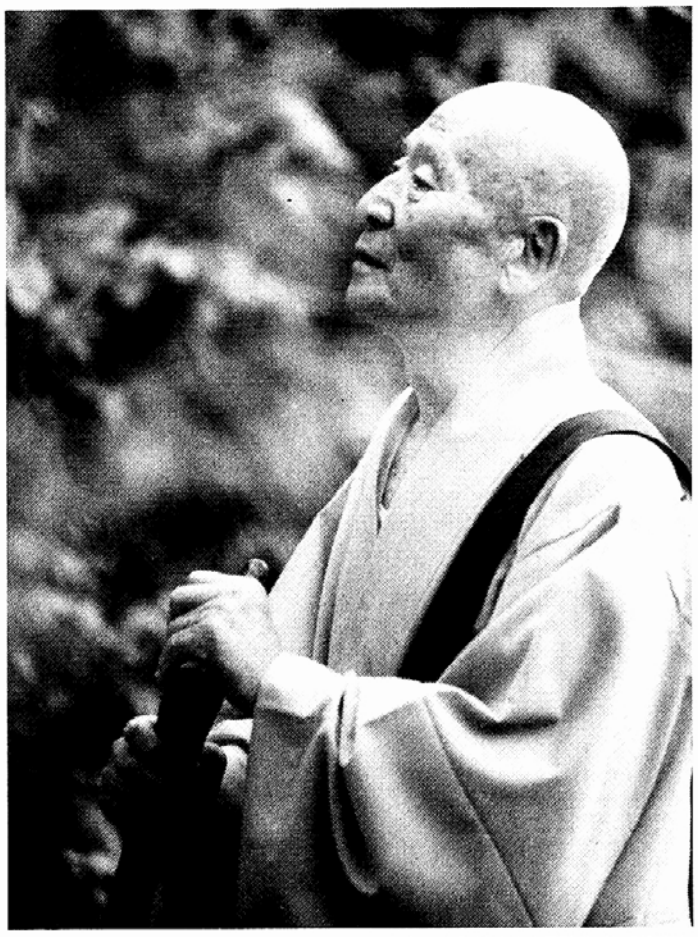
"황의돈이가 말끝마다 '일본양반, 일본양반' 하더니, 남전도 왜인에게 양반 대접을 해?" 하며 벌컥 화를 내셨다고 한다. 이렇게 한바탕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은 뒤 골이 나서 만해스님과 겸상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해스님은 이렇듯, 한마디 말에서도 추상같은 기개를 보여주셨다. 설산스님은 "나의 가슴에 '조선'을 새겨준 스승은 할아버지와 만해스님이지" 하며 힘주어 말했다.

서울 충신동 감로암에서 은사스님을 모시던 시절, 은사스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반백년의 세월도 훨씬 지났건만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는 말씀이다.

"예, 소승은 원력을 세워 육바라밀을 성취하기로 맹세하였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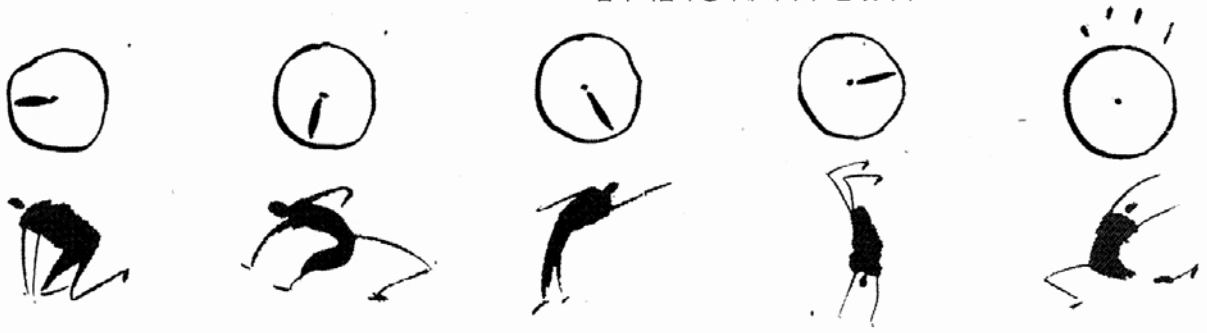
"그래, 육바라밀을 성취 정진하기로 했다고. 장하다. 그래, 입지게(立志偈)를 외우



◇오는 9월 만일염불을 회향하는 설산스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에 사는 것"이라며 생활속에서 늘 염불수행할 것을 당부하신다.

"
살 빼야지,
살 빼야지.
"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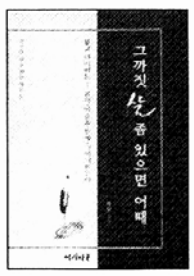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737-0697(팩스)

설산스님은?



삼장교학과 선지에 밝아
세수 83세…중생교화 꾸준

설산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스님을 은사로 계허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를 시작해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건봉사 공비생으로 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설산스님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교학(三藏敎學)은 물론 선지(禪旨)에도 밝으며 항상 석문(釋門)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에 앞장서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님은 청담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의 수법제자가 되어 화합종단의 종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출가본사인 건봉사 주지와 실달학원 원장을 맡아 후학지도와 수행교화에 헌신해 오셨다.

현재는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며 83세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진과 중생교화를 게을리 않고 계시는 스님은 회고록 〈뚜껑없는 조선역사책〉과 사찰안내서 〈명산고찰 따라〉를 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83세에도 정진을 게을리 않는 설산스님.

느냐?"

"예, 외우고 있습니다."

"영사신명종불퇴(寧捨身命終不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하여라."

일어서서 스님을 우러러 뵈옵고 큰 절을 올린 다음,

"예,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육신을 회향하려고 옛 생각이 자꾸 드나보다는 말씀이셨지만, 기자의 귀에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노스님의 간곡한 가르침으로 머문다.

건봉사 장학승으로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했던 설산스님에게 일제 치하에 뒤이은 전쟁은 또 한번의 시련이었다. 감로암에서 전쟁을 맞았다. 전쟁을 피해 멀리 충무의 욕지도까지 흘러갔고, 거기서 10여년 동안 국어교사로 지냈다.

욕지도 생활을 접고 동국대에 있을 무렵, 즈계종 종정이신 청담스님이 불렀다. 대뜸 첫 마디가 "초막(처자식)이 있느냐"는 것이다. 없다고 대답하자, 도선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다. 다시 산중에 들어 청담스님에게서 '설산(雪山)' 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때가 1965년. 청담스님은 수행에 정진하라며 설산수행(雪山修行) 노지백우(露地白牛)라고 쓴 휘호를 내리셨다.

"저기 표구해 모셔두고 하루에도 수십번은 읽고 있지. 도필(道筆)이지요."

'노지백우' 의 뜻을 물었다.

"글자 그대로 푼다면, 넓은 땅 위에 드러난 흰 소. 선가의 말씀인데, 수행을 해서 혜(慧)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설산스님은 19살 되던해 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 개설된 승려수련소에 입소해 당시 조실스님인 한암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대중이 수련생 15명을 합쳐 80여명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면 〈금강경〉 강론시간이 되는데 조실스님의 지시에 따라 경의 한 대목을 읽고, 곧이어 조실스님이 해석을 하시고 구절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일 배운것을 정신차리고 듣지않고 한눈팔다가 외우지 못하면 수련생들은 꼼짝없이 입승을 보시는 탄옹(炭翁)스님께 종아리를 맞아야 했어요. 조실스님이나 탄옹스님은 밤에 방선 후 새벽 세시까지 장좌불와를 하시는데, 탄옹스님은 앉은 자세로 10분간 누웠다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 앉아 계십니다."

스님은 당시의 치열했던 구도열기를 회상하시듯 눈을 감으시며 "한암스님 같은 대선지식이 오늘날에도 나와야 국가나 불교계가 잘 굴러갈텐데…" 혼자말씀을 하신다.

설산스님은 한때 청담스님을 모시고 종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출가본사인 건봉사의 주지 소임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뺏고 빼앗기는 주지 다툼이 싫어 다시 도선사로 돌아왔다.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경론을 강의했다. 그러다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저녁 송주(誦呪)로 외우는데, 염불하는 스님들이 아주 적었다. 스님은 염불로 불법을 전하겠다며 염불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라는 토굴을 얻어 만일염불 하기를 발원했다.

"내가 건봉사에서 출가했고, 건봉사가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이지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 건봉사에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정토사에서 시작했어요."

> 극락이 따로 있나
> '나무아미타불'
> 염불 삼매에 들면
> 내가 있는 곳 극락

오는 9월이면 만일염불을 회향한다. 회향을 앞두고 백일정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향법회를 크게 할 수는 없고 회향날만은 최소 100만의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눈으로라도 읽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잖아요."

설산스님은 누구에게나 염불할 것을 권한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만 외우면 돼요.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에 계시면서 누구라도 부르면 그 곁에 계신다고 했어요. 아미타부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미타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삼각산 자락에 몸을 기대어 바람소리 물소리 들으며 사는 노스님이지만, 종단에 대한 걱정이 없을 리 없다. 세상사를 초탈하는 것이 출가수행납자의 본래면목이라고 늘 강조하셨던 청담스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설산아, 처음 정화불사를 시작할 때는 참선수좌들이 큰 절 주지로 가라 하면, 그 이튿날 새벽에 걸망을 지고 다른 절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지금은 저 윗방의 삼십명이 넘는 수좌들이 나한테 주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조르고 있구나. 그들이 왜 주지를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고기맛 알고 돈맛을 알기 때문이다."

볼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청했다.

"학문을 닦고 수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뜻없는 삶은 슬픈 마지막이요,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삶은 보람이요, 최고의 희열입니다."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1935년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극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오른쪽 두번째 어린아이를 앉고 있는 사람이 설산스님.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종실스님

인간은 태어난 후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다음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후에는 사회, 즉 직장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최소단위의 사회구성체인 가족을 알게 한다.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 하는 이 기초적인 훈련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공동체인 것을 최초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학교는 열린사회로 통하는 문과 같다. 그 문을 통하여 사회의 성격과 구조와 규모 등을 스스로 가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곳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동물들의 세계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기준이 힘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기준은 나눔이다.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원칙이 그 사회의 가치기준이 되고 예(禮)와 의(義)로 정의된다. 인간은 이 나눔의 실천을 종교와 교육을 통하여 실현한다. 그렇다면 종교의 역할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어야 할까?

종실스님은 대전광역시에서 117개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그 일은 후배들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고 지금은 청소년 자원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봉사 센터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또 20년 가까이 청소년 법회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고 고민을 함께 들어주며, 그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어머니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거두어주고 있는 스님이다.

6~7년 전에 내가 중앙승가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종실스님이 나를 찾아 학교를 방문했다.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는 승가대학의 1년 선 후배 사이라는 것 외에는 나를 찾아 특별히 학교에까지 올만큼 왕래하며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졸업 후 대전에서 청소년 지도를 열심히 하며 산다는 것을 아는 정도였다. 서로 인사 후에 무슨 용무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나를 놀라게 했다. 보기에는 여리고 순하게 생긴 스님인데 어디에서 그런 열정과 염원이 솟아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승가대학 졸업 사은회 때 수줍어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채 다소곳이 '돌아오라 소렌토로' 를 부르던 종실스님이 아니었다.

내일의 세계는 오늘의 청소년이 주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 사천 경전 속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본적 있느냐, 만약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또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처럼 그들과 무관하다면 결국 불교는 존재이유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종교나 사회 단체들은 청소년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아낌없이 하여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자원확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는 아직도 어떤 유행가 가수가 부른 노랫말처럼 관망자적인 입장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중앙승가대에도 청소년관련 학과를 꼭 개설해주기를 거듭 거듭 간청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후 학교에서 청소년관련 학과 개설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못해보고 사퇴하고 나왔다.

지금 종실스님은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현행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보현행이란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열가지 원력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둘째, 부처



님을 찬탄하는 것. 셋째, 널리 공양하는 것. 넷째, 업장을 참회하는 것.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여섯째,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일곱째,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아홉째,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열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45년간 설하신 설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기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연법이다. 연기법과 인연법을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좀더 구체화한 것이 보현행이다. 종실스님이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에는 특정한 종교나 사회적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종실스님은 그들에게 종교목적의 교육이 아닌 생명나누기 실천교육을 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느끼게 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자기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게 하는 보현보살 같은 스님이다.

정취암 한주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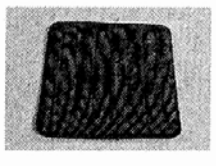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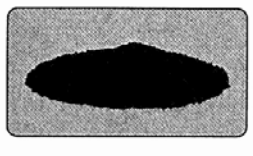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봉인사 위빠사나 여름 수련 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수 있는 시간에 많이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7월 · 8월 여름수련회 수련일정 ◆

수련내용	날 짜	기 간	회비(원)	지도스님
위빠사나	6월 21일 ~ 24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5일 ~ 8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19일 ~ 22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8월 5일 ~ 11일	6박 7일	15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8월 23일 ~ 26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주 말 수 련	1박 2일	20,000	지산스님

▷ 3박4일 , 6박7일 · 입실 : 오후 5시 · 퇴실 : 오후 3시(유경험자인 경우 주말 수련회에 참여가능)
▷ 주말 수련회 · 입실 : 오후 4시 · 퇴실 : 오후 3시
▷ 준비물 : 좌선하기 - 편안한 복장, 신발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긴팔상의 준비
▷ 연락처 : 031)574-5585, 031)529-5585 ※ 미리 신청해 주세요.

봉인사 한길정진원



가무악 '환생' 21~23일 예술의 전당

죽음의 미학 '형상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가무악 '환생'이 21일~23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증견 안무가 국수호 씨가 극의 대본과 안무를 직접 맡은 이 공연은 대형 북을 주요한 표현수단으로 택했다. 특히 기존 가무악보다 북을 이용한 타악의 율림이 강하게 표현되는데, 장엄한 북소리와 아쟁과 바이올린의 혼령무, 승무의 동작을 현대화 한 춤사위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탄생의 신비, 삶의 고뇌와 환희, 그리고 죽음의 경외심을 하나의 사이클로 '인간의 삶은 소멸되지 않고 전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1장 〈탄생〉에서는 인간 탄생의 기원과 축원의 춤과 소리들이 펼쳐진다. 무속적인 방법인 예언이나 굿 등을 통해서 풀어가게 되는데, 생의 기원, 생성, 탄생을 의미한다. 2장 〈삶〉에서는 환생된 현재 삶의 편린들로서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아픔들이 펼쳐진다. 삶 속에서 갖는 또 다른 환생에 대한 기원들이 환상처럼 극락과 지옥의 형상들로 보여진다. 불교음악과 김로탱의 지옥, 극락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 삶의 편린들을 보여준다.

3장 〈죽음 그리고 환생〉은 죽음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의 춤, 영혼들과 그들의 고통이 표현된다. 인간들의 고통은 바로 영혼의 울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머리를 푸는 형상 등으로 헤매는 영혼들, 한국적인 죽음의 미학을 형상화한다. ☎523-0987 이은자 기자

불교TV 위성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

불교TV(사장 이수덕)가 위성방송 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15일 불교TV를 비롯한 49개의 비디오 채널과 60개 오디오 채널 등 109개 채널을 1차로 선정 발표했다. 이에 10월부터는 위성으로도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가시청권이 국외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TV는 또 인터넷 포교매체인 불교인터넷 방송(btn)을 18일 개국, 본방송에 들어갔다. 인터넷 영상 포교를 위해 19시간 실시간 방송과 5개 채널 25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인터넷 영상 포교를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번 인터넷 방송의 개국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으로 불교TV는 3개의 영상 포교 매체를 보유하게 됐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a.com

"스님도 목사도 법기보살 현신"

장편소설 '담무갈' 펴낸 남지심 씨



'우담바라' 이후 13년만의 작품

소설의 골격 원불교 삼동원리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전라남도의 한 암자에서 집필에만 전념해 온 소설가 남지심 씨가 장편소설 〈담무갈〉(전 4권, 푸른숲)을 펴냈다.

소설〈우담바라〉출간 이후 13년 만에 발표한 신작 소설〈담무갈〉은 자본이 권력이자 신앙이 된 시대에서 우직하게 혹은 현명하게 종교적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를 액자소설 형식으로 끼워 넣었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태어나고 죽는다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날로 황폐해지는 공동체적 삶의 올타리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의 현실적 의미까지를 진지하고 폭넓은 시선으로 성찰하고 있다

—제목 담무갈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종교와 종교인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담무갈은 〈화엄경〉에서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상주하며 법을 일으킨다고 전하는 법기보살인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스님, 목사, 신부, 원불교 교무 등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삶 속에서 항상하는 법기보살의 현신이나 마찬가지다.

—원불교를 소재로 했는데?

〈담무갈〉에서는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애와 원불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삼동 윤리를 형상화시켜 보았다. 삼동윤리는 모든 종교의 회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동윤리를 형상화하기 위해선 불교 쪽 스님을 끌어들일 필요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 생소한 스님을 또 만들어 내는 것 보다는 독자들 기억 속에 살아있을 백족화상을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담바라〉의 백족화상을 〈담무갈〉 속에 끌어들였다. 그랬더니 〈우담바라〉속에 있던 인물들이 저마다 손을 흔들며 〈담무갈〉 속으로 들어왔다. 마치 10년간 잊고 있던 자신들의 존재를 나에게 일깨워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담무갈〉을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전작인 〈우담바라〉와 연계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원래는10년 전 한 원불교신도의 부탁으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를 다룬 소설을 쓰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담바라〉의 후편이 되어 버렸다.

—〈담무갈〉과 〈우담바라〉의 차이점은?

〈우담바라〉는 개인적인 구도과정, 즉 개인의 완성 쪽에 밀착했었다. 그때는 40대였으니까 개인의 삶에 더 치열히 고민했던 것 같다. 50대 후반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런지 이번 〈담무갈〉은 개인적 고민보다는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두었다. 각각의 종교가 그 자체로 저마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소설 속에서 실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서로 돕는 모임을 만들어가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 실제로 나는 이같은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도와 서로의 완성을 이루고,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흥하지만 한강은 한강대로, 압록강은 압록강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에 머물면서 9월경부터 다음 작품 다듬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아마 내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 작품을 쓴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무 힘이 든다.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조용히 쉬면서 개인수행과 신행공동체 〈우리는선우〉의 일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조선 회화·글씨 '감상기회'

21일부터 학고재화랑

겸재 '취성도' 첫 공개

겸재(謙齋) 정선, 단원(檀園) 김홍도 등 조선조 미술사를 빛낸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명화 개인소장품 특별 공개전'이 21일부터 서울 인사동 학고재화랑에서 열린다. 전시에 소개되는 화가는 정선, 관아재 조영석, 공재 윤두서, 연담 김명국, 현재 심사정, 능호관 이인상, 호생관 최북, 김홍도 등 8명이다. 회화 33점과 글씨 14점 등 47점이 출품되며 모두 개인 소장품들이다.

전시작중 겸재의 산수채색화 〈취성도(聚星圖)〉는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취성도〉는 중국 후한대의 명사인 진식(陳寔)이 구숙(荀淑)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만남을 증언하듯 덕성(德星)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고사를 나타낸 작품이다. 관아재의 〈설중방우도〉는 눈 내린 겨울 어느날에 한 선비가 첩거중인 벗을 찾아와 고담준론을 나누는 모습을 잡아냈고, 석공이 돌을 깨는 공재의 〈석공공석도(石工攻石圖)〉와 〈달마도〉 등도 볼만하다. 이번 전시는 미술평론가 유홍준(영남대 교수) 씨가 조선중기와 후기를 풍미한 화가 8명의 예술적 성취를 평전으로 엮은 〈화인열전(畵人列傳) 1, 2〉(역사비평사)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739-4937.



◇관아재 조영석의 '설중방우도'.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일반적으로 시간을 강으로 비유한다. 시간도 강처럼 흐르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 바로 삼매의 시간이고, 깨달음의 시간이다.

의상대사의 '법성게' 중에서 화엄의 시간관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말은 '九世十世互相卽', 즉 '흐르는 시간(九世)과 순수한 시간(十世)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곱해진다(卽)' 하는 구절이다. 흐르는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가 생겨나고, 그것을 다시 세분하여 아홉 개의 시간관념(九世)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의상의 스승 지엄은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아들과 손자가 밑에서 기와를 나르는데, 자기가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과거이다. 과거이기 때문에 오직 한 자리(一位)일 뿐이다. 아버지는 과거의 현재요, 현재의 과거이다. 그러므로 이위(二位)이다. 중간자인 나는 과거의 미래요, 현재의 현재요, 미래의 과거이므로 삼위(三位)를 갖추고 있다. 아들은 현재의 미래요, 미래의 현재이므로 이위(二位)를 갖춘다. 손자는 미래이므로 오직 일위(一位)일 뿐이다."

영원한 주제 '시간' (3)

깨달음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마치 영문법의 동사 시제처럼 화엄학은 흐르는 시간을 이렇게 아홉 가지로 세분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다른 차원의 시간인 십세(十世)가 있다. 이것이 삼승교(三乘敎)와 일승교(一乘敎)의 차이이며, 삼차원과 사차원을 가르는 경계이다. 원효대사는 사제, 연기의 교훈을 도그마적으로 신봉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사변적 논리를 강조하면 낮은 차원인 삼승에 갇히고 만다고 했다. 그런데 편견과 대립이 없는 원융회통의 주체요 화쟁(和諍)의 주체인 우리의 진여한 마음에서 보면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의상대사의 십성제자(十聖弟子) 중의 한 사람인 지통(智通)은 자신이 체험한 이 '순수시간의 경험'을 스승 의상에게 아래와 같이 고했다.

"제가 태백산 미리암 굴에서 화엄관을 닦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큰 멧돼지가 굴의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상시와 같이 목각존상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불을 올렸더니, 그 목각불상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 앞을 지나간 멧돼지는 네 과거의 몸이다. 나는 네가 미래에 받을 과보(果報)로서의 부처가 되리라.' 저는 목각불상의 말을 듣고 즉각 '삼세가 일체(一際)'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의상은 제자의 그릇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인증의 표시로 법계도의 도인(圖印)을 그에게 주었다. 삼승의 흐르는 시간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멧돼지에서 인간이 되고 인간에서 부처가 된다. 하지만 일승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멧돼지 속에 이미 인간과 부처가 다 들어있다. 일체중생 속에 불성이 있다는 말도 이런 뜻일 것이다. 지통의 이야기는 깨달음의 핵심이 시간체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간체험의 핵심은 생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8배, 두종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불교개혁 본질은 바른 믿음"

'한국불교 개혁론' 김경집 지음



권상로

"물질개혁 앞서 정신개혁 시급"



만해 스님

"전근대적 사원경제 한국불교 모순척결"

"한국불교는 종단의 합법성을 박탈하여 종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 은거, 선(禪)·교(敎)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무종산승(無宗山僧)시대였다."

개항 전후의 한국불교 현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한국불교는 한일합방 이후 또다시 질곡에 빠진다. 이러한 때 한국불교의 비합리적인 규율이나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이념을 제시한 것이 '개혁론'이다.

신간 〈한국불교 개혁론 연구〉(해인행)는 개항 이후 법맥의 흐름조차 희미해진 불교계를 혁신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개혁가 5명의 개혁론과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혁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권상로, 만해·용성 스님 그리고 이영재, 회당 손규상 등 다섯 명이 그 대표적 인물. 지은이는 한국근대불교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경집(41·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씨. 그는 먼저 한국 불교사에 있어 근대의 성격을 드러내는 개혁사상은 시대적 자각운동이라고 강조한다.



권상로·만해·용성 스님 등 의식·제도·교육 쇄신 주창

개항 이후 가장 먼저 개혁론을 제시한 사람은 퇴경 권상로. 그는 1912년 조선불교월보에 '조선불교 개혁론'을 연재하면서 당시 한국불교계의 개혁을 촉구한다. 4편 15장으로 구성된 이 개혁론은 정신적 개혁과 함께 당시 불교계의 당면과제인 승단의 제도와 사원경제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만해 스님이 1913년 5월 〈조선불교유신론〉을 출간하면서 불교계의 개혁운동은 정점에 이른다. 책은 만해 스님이 척결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의 고순점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사찰의 위치에서 오는 비효율성, 둘째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승려의 위상과 교육문제, 셋째는 사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근대적 관행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자각을 호소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고 주장된 것이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이다. 1922년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된 이 혁신론은, 한국불교의 쇠퇴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데에 있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른 믿음이 한국불교의 개혁의 무기라고 단호한 어조로 천명한다.

이러한 혁신운동 가운데 용성 스님의 개혁운동은 대중적이라는 특성을 띤다. 불교라는 종교가 사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용성 스님이 대중적 개혁운동에서 가장 가치를 둔 점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메시지는 100여 년 전 제기됐던 승단의 의식·제도·교육 등에 대한 개혁론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영재

"바른 믿음이 불교개혁의 무기"



용성 스님

"불교대중화 교육 진정한 혁신운동"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종범 스님 '불교를 알기쉽게'

초심불자들이 입문서를 고르는 유형 네 가지. 첫째는 부처님의 생애와 의식 그리고 예절에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둘째는 기초교리서를 고르는 사람, 셋째는 불교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넷째는 경전과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사실 시중 서점가에는 수많은 입문서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서가 스테디셀러로 읽히는 경우는 출간된 책의 종수에 비해 극히 적다. 그 많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로 종범 스님이 쓴 〈불교를 알기 쉽게〉(밀알)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84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55쇄를 거듭할 정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책이 이처럼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읽히는 이유 가운데



설법하듯 요점 정리 84년 초판…55쇄 나와

하나가 초심자들이 입문서를 고르는 네 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설법식 문장이다. 사실 이 책은 본래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쓴 것이 아니다. 스님이 여러 사찰과 단체에서 설법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또 하나는 다양성과 전문성이다. 근본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선불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기본교의와 수행은 물론 불교의 개요와 역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요점만을 집대성했다는 점이다.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평화롭고 넉넉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불자는 드물다. 불자들은 스스로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이고 눈을 밝히고 있는지 자문에 봉일이다.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불자가 있다면 이 책을 권해본다. 또한 불교지식을 갖춘 불자들에게도 이 책은 한층 더 불교의 알음알이를 깊고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초의선사가 본 한국차 우수성

'동다송' 소암스님 지음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다신전〉을 편역 강해한 〈동다송〉(명상)이 출간됐다.

불교텔레비전에서 〈동다송〉을 강의하고 있는 소암 스님이 내놓은 이 책은, 동다송과 다신전의 원문과 원저자의 역주와 번역문 그리고 지은이의 강해와 주석이 실려 있다. 또한 초의 선사가 걸어온 학문과 구도의 길, 사상과 업적을 소개하여 일반인들에게 스님의 면모를 알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이 가꾸어 왔던 차 문화가 근래에 쇠퇴한 배경과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는 글과 함께 우리나라 차문화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이규보, 서산대사, 정약용, 김정희 등의 다시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우리 나라 차의 빼어남을 노래한 〈동다송〉은 한국 다도의 성전으로 일컬어진다. 〈다신전〉이 차의 제조, 음다법을 적은 것이라면, 이보다 10년 뒤에 나온 〈동다송〉은 한국 차의 우수함을 중국 차와 비교해 서술한 독창적인 저술이다.

초의 선사는 해거 홍현주의 부탁으로 〈동다송〉을 지었지만, 길지 않은 문장 속에서 차에 관한 여러 의미와 생각을 담았다. 차는 무엇인가, 차는 왜 마셔야 하는가,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등은 차 생활을 하는 다인들에게 다도의 지침으로 다가온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단순함과 느림은 삶의 청량제"

지금 출판가엔…

'단순한 삶'을 다룬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출판시장에는 단순함과 느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인생철학에 대한 잠언집 형식으로 꾸며진 〈단순하게 사는 법〉과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느리게 사는 즐거움〉 등은 바쁘고 복잡한 생활에 휴식을 주는 책으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처세법에 대한 제안을 담은 책들도 있다. 〈단순하게 그리고 조금 느리게〉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생을 단순화하라〉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법을 적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삶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금 소박하게〉(린다 브린 피어스 지음, 이순주 옮김, 웅진, 값 8천5백원)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피에르 쌍소 지음, 김주경 옮김, 값 7천원) 등 2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조금 소박하게〉는 단순한 삶을 선택한 37명의 실제적인 삶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최고의 비소설로 꼽히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후속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는 느리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지은이는 걷기,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읽기를 통하여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느긋하게 음미할 것을 권한다.

김중근 기자

현대인들에 던지는 삶의 의미

'너희들 어디를…' 강건기 지음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불일)는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전주 전북불교대학, 보조사상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건기 교수의 불교칼럼 모음집이다.

책의 제목처럼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부처님의 물음을 상기시키는 글이다.

'법련'지 '마음에 새겨보는 경전 말씀'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을 모아 펴낸 이 책은 '나는 집을 버렸다',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아라' 등 모두 5장을 구성되어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여명의 빛은 동방에…"

'천년의 빛' 김하기 소설



작가 김하기 씨가 석굴암 본존불 금강석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천년의 빛〉(전 3권, 고도)을 내놓았다.

주인공은 전업인 파파라초 생활을 그만두고 볼리비아계 미국인 수퍼모델 잉카 맥도웰의 경호인 겸 애인인 김민호(영어 이름 '타미 리'). 그는 잉카와 함께 볼리비아를 여행하던 중 그란 포데 축제에서 한 인디오 노인으로부터 유리알처럼 생긴 '여명의 빛'이라는 거짓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게 된다. 이 소설의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여명의 빛'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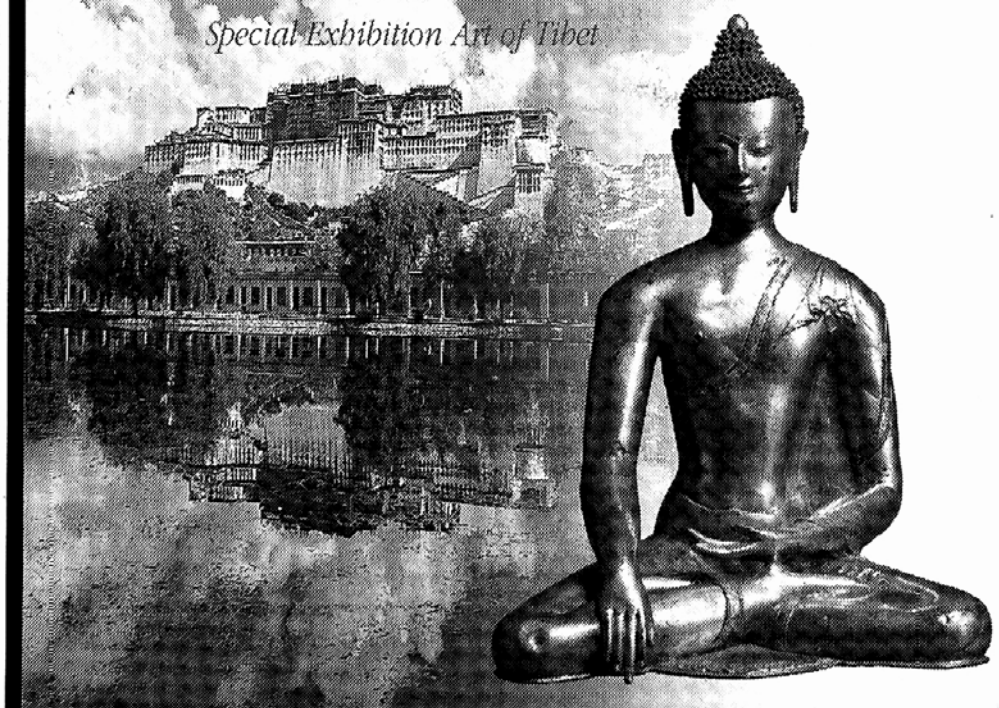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 관	우 리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5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 병 후	화 두
6	참회 참회 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트윕 닷컴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10	온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도서 안내: (02)737-0695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제작시연이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http://www.tongdomuseum.or.kr
■ 6월 25일(음 5. 5) 오전 9시 30분에는 박물관 삼층석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고성 운흥사 괘불 보물 지정 예고

산청 율곡사 괘불탱도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시킨 장소로 유명한 경남 고성 운흥사의 영산회괘불탱(사진)과 괘불을 넣어 보관하는 궤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14일 이와 함께 산청 율곡사 괘불탱, 신 · 구법 천문도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 영조6년(1730) 조성된 운흥사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이 화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그려져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화기로 보아 당대에 화승으로 이름을 떨친 금어, 의겸 스님 등에 의해 조성됐다. 이듬해 조성된 괘불궤는 묵서로 쓴 조성기가 남아 있으며, 정교하고 다양한 철제 장식은 당시의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에 비해 산청 율곡사 괘불탱은 보살로 보이는 한 분만을 모신 독존탱으로, 보관에 다섯 부처님이 안치된 게 특징이다.

권형진 기자

탄 신

불전국역硏 수강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은 연수과정 및 연수과정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화엄학 특강, 조사어록, 서장, 유식 등 네 강좌가 개설되며 21일까지 국역원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강의는 9월 3일부터 시작한다. (031)980-7803

불교원전 2개월 강좌

보조사상연구원은 7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불교원전강좌를 개설한다. '〈보조전서〉 강독' (김종명 전 서강대 교수) '의상의 〈법계도기총수록〉 강독' (연구실장 인경 스님) '빨리어 불전 강독' (안승준 동국대 강사) 세 강좌가 열리며 강좌당 선착순 17명만 수강할 수 있다. (02)733-5315

"강화 선원사터 궁궐터 아니다"

동국대박물관 4차발굴 성과공개

건물배치 전형적 사찰양식
나한상 · 연화문 기와 등 출토



◇소형 청동상, 불탄 금니사경 조각과 묵서 사경 조각 등이 나온 선원사지(사적 259호) 동북단 건물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선원사 터인지 강화 천도시절 고려 임시 궁궐터인지로 의견이 분분한 강화 선원사 터(사적 제259호)에서 이 곳이 절터임을 보여주는 유물과 건물터 등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선원사 터에서 4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은 12일 그 동안의 발굴성과를 공개하며 "유구 노출 상황과 출토 유물로 볼 때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터는 가궐터가 아닌 사찰터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우선 사적지가 금당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터(전면 38m, 측면 18m)를 중심으로 12동의 건물터가 좌우 대칭으로 조성돼 있는 점을 들었다. 사적지내 건물 배치가 남에서 북으로 중문지-금당지-추정 강당지로 이어지고 주변 건물터의 배치 역시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단 건물터에서 발견된 유물 역시 박물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전면 28m, 측면 17m 규모의 건물터에서는 연화문과 범자가 새겨진 기와가 다량 출토됐다. 불에 탄화된 금니사경 조각과 묵서사경 조각이 소형 청동 나한상, 두루마리 사경축의 마무리 금동장식품 등과 함께 나왔다. 박물관 측은 청동 나한상은 일반인들이 개인 신앙 차원에서 호신불로 지니기에 부적당하며,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박씨 또는 유씨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역시 가궐터라면 발견될 수 없는 유물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는 "명문기와나 확실한 금석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헌자료로 볼 때 이처럼 큰 규모의 절터가 강화도내에 있을 만한 곳이 없으므로 현재 터가 선원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학자들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선원사의 위치가 '강화읍에서 8리'라고 나와 있는데 현 터는 10리가 넘는 점 등을 들어 '충렬사 뒷터가 선원사 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화문화원 남궁신 연구원은 "문헌기록으로 볼 때 충렬사 뒷터가 선원사 터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며 "불교유물이 출토된 것은 가궐터 내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후 관심은 동국대 박물관에서 대장경판을 보관한 판전지로 추정하고 있는 서쪽 지역에 대한 조사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쪽 지역 5천여 평은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사적지 확대 지정 및 부지 매입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전쟁 때 180여 사찰 피해"

조계종 문화부 자료조사

한국전쟁 당시 몽땅 불탔거나 부분적으로 불탄 사찰이 당시 남한지역 사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문화부가 밝힌 '한국전쟁 피해사찰 1차 문헌조사 현황'에 담긴 통계다.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에 등록된 남한 지역 사암은 모두 969개. 조계종 문화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교계신문, 〈전통사찰총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180개에 이르는 사찰이 방화나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찰의 3분의 2이상이 국군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아군에 의한 피해가 더 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1 · 4후퇴나 국군의 2차 북진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와 경기도 한강이북지역 사찰의 피해가 컸고(각각 40곳, 27곳),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전라남 · 북도에서도 73개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사찰의 피해는 곧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파괴로 이어졌다. 전남 곡성 관음사는 국군의 작전 수행 중 방화로 인해 국보 273호인 원통전과 그 안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국보 214호), 20여 동의 전각이 불탔다. 순천 송광사의 국보 404호인 백운당 · 청운당과 조선 초기 건축양식의 걸작으로 인정받던 국보 240호 장흥 보림사 대웅전도 방화와 폭격으로 불타 없어졌다. 강원도 월정사는 우리 나라 3대 종의 하나로 평가받던 선림원터 동종이 칠불보전을 비롯해 10여 동의 건물이 불탈 때 함께 타버렸다. 그러나 경기도 봉선사의 경우 1932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찰귀중목록〉에 등록된 45점의 불교문화재가 가운데 현재 목조아미타불상 등 4점만이 남아 있는 등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피해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방부에 남아 있는 당시 군 작전일지, 〈조선사찰귀중목록〉과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의 비교, 해당 사찰이나 주민 증언 채록 등이 앞으로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한 피해상황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원인이 규명되면 해당 사찰의 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삼국유사 초간본 일연 스님 사후 출간

채상식 교수 주장



〈삼국유사〉 초간본은 일연 스님 입적 후 문도들이 간행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부산대학교 채상식(사진) 교수는 15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일연비를 건립한 혼구가 굳이 '부기'를 수록하면서까지 새로 간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삼국유사〉는 일연이 내용항목 순으로 제1~9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사후 일연의 계승자로 자처한 혼구가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여 5권으로 나누고, 이를 토대로 초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연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삼국유사〉 탄생 배경을 추적해 들어간 채 교수는 〈삼국유사〉에 앞서 간행한 〈역대연표〉는 "왕력편의 기재양식 등을 볼 때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원광법사와 민중불교

원광법사(圓光法師, 555~638)는 화랑도의 실천덕목이 되는 세속오계라는 가르침을 주었고, 수나라에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글인 '걸사표'를 지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승이다. 법사는 진흥왕 대에 출가하여 진평왕 대에 왕과 민중들의 승앙을 받으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정신적인 사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민중들에게 현현한 고승이었다.

그래서 신라의 고승으로는 드물게 전기가 중국의 〈속고승전〉에 실렸으며 우리의 기록인 고본 〈수이전〉이나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에도 행적을 남기고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들 사서에 법사의 성씨나 출생 신분 그리고 출가시기, 중국유학시기, 입적시기 등의 사실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법사의 삶을 읽는데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기록이나 역사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법사의 성씨는 설씨이며 신분은 6두품이었으며 13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고, 30여세에 중국에 12년간 유학하고 귀국 후 높은 교화활동으로 신라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다가 나이 84세 법랍 71세에 입적하였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간혹 법사가 당시 골품제 사회에서 6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승려로 출가하고 유학을 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사의 모든 행각은 애오라지 순수한 구도적인 열정과 국가와 민중을 위한 헌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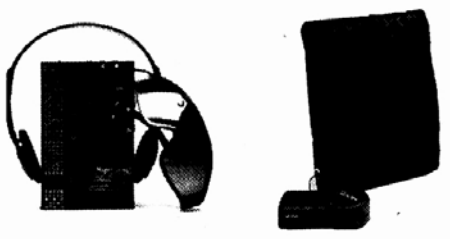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항에게 준 '세속오계'.

불교가르침 민중속으로 교화
화랑 실천덕목 '세속오계' 유명

법사는 중국에 유학 가서 승민 · 담천 · 혜원 등의 당대 고승들에게 열반경 · 성실론 등의 경전을 배웠고 귀국한 후에도 신라의 왕실과 민중들의 절대적인 숭앙을 받았다. 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교단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사회와 민중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법사는 귀산과 추항이라는 신라의 청년이 찾아와 교훈을 청했을 때 세속오계를 지어 주어 화랑도와 신라민중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하였다. 세속오계는 유교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사가 독특하게 창안해낸, 불교의 실천윤리인 보살계 정신의 표출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사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처음으로 가르쳐서 당시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에서도 민중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점찰보를 두고 점찰법회를 개최하여 민중들이 불교에 귀의하여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하였다. 이렇듯 법사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민중들에게 처음으로 실천적인 교화를 펴서, 불교의 실천화 ·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고승이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계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 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지 등/미국 마이크로필사)
* 오라진동쿠션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미국 마이크로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필사)
메가플러스 명상기 효과 및 특징
*차크라, 소주천 명상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메가플러스와 오라진동쿠션이 하 중 상단전 순서대로 氣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빛과 소리, 진동 느낌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행법을 하지 않고도 빛과 소리, 진동을 느끼면서 위빠사나 명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가플러스의 빠른 릴렉세이션 효과는 명상 이외 학습과 창의력, 깊은 휴식,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완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을 15분에서 120분까지 5분 단위로 변화시켜 21개 프로그램을 총440개의 형태로 압축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5개로 구성된 톤은 메가플러스 프로그램을 45개로 확장시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메가플러스는 사용자프로그램이 있어 자신에게 맞는 맞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구입시 쿤달리니 프로그램을 입력해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888-2142

지리산 자락 신비의
참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 걱정되시죠?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상담문의 : 055)963-9583 · 자료신청 055)355-562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혜광이 절절한 음성으로 거듭 애원을 하니…"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㊱

(35) 소림사에 주석하시다

소림사 주지 혜광은 동굴 앞에서 계속 읍소했다.

"조사님, 소승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소림사로 내려가시지요. 소림사의 대중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조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승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선정에 든 달마의 입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미 체면 따위는 팽개쳐 버린 혜광은 절절한 목소리로 애원을 거듭했다.

이윽고 선정에서 깨어난 듯 달마의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주지께서 이렇게 큰 예를 차리시니 오히려 노납이 불편하구려. 어서 일어나시지요."

달마는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혜광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손수 혜광을 일으켜 세웠다. 혜광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시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지난날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납의 깨달음이라야

달마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지난 일은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주지께서 친히 이 곳까지 오셨는데 나가서 맞이하지 못한 노납이 오히려 미안하구려."

혜광이 펄쩍 뛰면서 정색을 했다.

"조사님의 지혜와 인자함에 다만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소승을 그렇게까지 예우하시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인의 얘기를 듣고 오늘에야 비로소 조사님께서 이 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불찰은 백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조사님께서 수 년 동안 동굴에서 면벽 좌선하시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이미 불고(佛果)를 통해 증명하셨는데 어찌 더 주저하겠습니까. 조사님께서 저희 절에 주석하시면서 중생을 교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겸손하게 사양했다.

"노납은 옛날 치우가 공부하던 이 동굴을 빌려 선법을 수행하면서 조금은 깨달은 바가 있기는 하오. 하지만 주지께서 몸소 노납을 청하시다니, 실로 황송한 말씀이외다."

달마의 말이 끝나자 혜광은 다시 간절하게 호소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조사님께서 여러 해 동안 벽관하시면서 선을 닦으시어 그림자가 석벽에 들어가 박히었으니 이미 그 법력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어찌 저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조사님께서는 부디 하산하셔서 설법교화를 하시옵소서. 소림사에 있는 승려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소서. 조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하게 바라옵나이다."

달마는 법연이 이미 닿았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여전히 정중하게 사양했다.

"주지께서 노납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시겠다니 참으로 감사하오. 주지께서는 노납이 선을 닦아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만,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소이다. 오직 주지와 여러 승려들의 관용을 바랄 뿐이오. 노납이 다시 몇 년을 더 정수(精修)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실 수는 없겠소이까. 때가 되면 즉시 내려가리다. 그리고 다시 천축으로 돌아가 평생의 소원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러나 혜광은 달마의 겸양하는 말에 더욱 조바심이 났다. 자칫 조사를 모실 수 없을까 싶어 애간장이 타올랐다. 다시 합장하며 무릎을 꿇고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애원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사님께서 성불하는 길을 깨우치시고도 하산하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정의 바른 법을 어떻게 전하며 또 중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소승의 이 진정한 마음을 가륵하게 여기시고 소림사에 머무시어 그 법을 길이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비록 소림사가 불편하실지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승은 모든 것을 바쳐 받들겠나이다."

이쯤 되면 달마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뒷날로 미룰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달마는 할 수 없다는 듯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 서너번씩 설법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주지와 여러 스님들의 그 뜻을 어찌 노납이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소림사로 내려가서 널리 정법을 펼쳐 중생을 구하는데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혜광과 여러 승려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큰 절을 올렸다.

"조사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달마는 말이 난 김에 서둘러 혜광의 안내를 받아 소림사로 내려갔다. 소림사의 분위기는 마치 봄을 만난 듯 포근했다. 천명이 넘는 소림사의 승려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중하게 조사를 모셨고 하늘같이 받들었다.

비록 백 살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지만 달마는 젊은이 못지않게 정정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엔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요즘 말로 오로라의 붉은 원광이 달마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달마의 법력을 말해 주는 상징이었던 셈이다.

달마는 소림사에 온 첫날부터 모든 승려들을 불러 놓고 정법을 강설했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경전도 들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강법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모든 경전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무불통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흔히 달마가 서쪽에서 올 때 '무자진경(無字眞經)'을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무자진경'은 두 갈래로 풀이된다. 하나는 책으로 된 경전 따위는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진법은 글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마의 법은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달마는 하나(一)의 진법인 '무자진경'을 가르치는 데 정성을 다 쏟았다. 피로를 전혀 모르는 그의 왕성한 활동력에 모든 승려들이 혀를 찼다. 승려들도 본받아 공부와 홍법(弘法)에 날이 지새는 줄을 몰랐다.

달마가 소림사에 주석했다는 소식은 날개가 달린 듯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소문이 증폭되어 신비스런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마치 달마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양 여기지기까지 했다. 낙양과 숭산 일대에서는 스님이든 속인이든 소림사에 가 보지 않고선 사람 축에도 못 끼었고, 더군다나 이야기 상대조차 될 수 없었다. 한동안 향과 종이의 수요를 따르지 못해 낙양의 종이 값과 향 값이 폭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달마의 법요(法要)를 듣고자 했다. 달마는 그것을 뿌리칠 길이 없었다. 달마는 매일처럼 하루에도 서너 번씩 법을 설했다. 달마의 초인적인 강설에 혜광 이하 승려들은 다만 경탄할 따름이었다. 달마는 설법을 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그의 입 속에선 단침이 넘쳐 흘러 목마름이 없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이의 설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표본이 되고도 남는 것이라고 모두가 소곤거렸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달마는 '대접받는 스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다. 스스로 대접하는 스님의 자리를 견지했다. 승려와 속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직접 나서서 대접하는 스님이 된 것이다. 달마는 조사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었다. 세속(世俗)과 비속(非俗)도 뛰어넘고 오로지 중생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달마는 이제야 스승 반야다라 존자가 이른 대로 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동쪽 땅으로 다시 회귀시킨 천부의 진법을 그가 펼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에겐 하루가 새로웠다. 그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하루하루를 마무리지었다.

불가에선 원래 정력(定力)을 중요시하고 인정발혜(因定發慧)를 강조해 왔다. 인정발혜란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로지 마음을 한 뜻에 모아야 비로소 정진을 계속할 수 있고 보고(寶庫)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달마는 승려나 속인에게나 예외 없이 이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진실로 지키고 실천하지 않고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것이 문파가 되어 대승, 소승, 공종(空宗), 유종(有宗)으로 나뉘고 급기야 팔만사천이 되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문파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행하면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길로 가느냐의 여부는 오직 본인의 결심과 의지 그리고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법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자기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법을 밖에서 구하려고 안달들이다. 달마는 이 점을 늘 안타깝게 여겨왔다.

달마는 법을 설하는 일 이외는 여전히 산에 있는 석굴로 돌아가 계속 면벽 좌선을 했다. 달마 스스로 감히 정진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다. 깨달음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달마는 문자 그대로 장좌불와(長坐不臥)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눕는 일 없이 오직 앉아 있는 수행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이다.

새들도 환희의 합창

이렇게 함으로써 달마의 몸과 석벽에 각인된 그림자는 멍실공히 하나가 되었다. 달마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몸과 바위가 하나가 되어 밝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휘감겼다. 빛의 파장과 입자가 동굴 속에 가득 채워졌다. 달마가 동굴을 나와 소림사를 갈 때마다 보기(寶氣)와 신광(身光)이 산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리 꽂혔다. 소실산의 모든 산봉우리가 춤을 추듯 넘실거렸고 온갖 새들은 환희의 합창을 했다.

조사 달마의 위용은 산을 뒤엎는 듯싶었다. 소실산의 여러 사원과 암자, 동굴, 촛불, 향불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왜소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달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형국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싶었다.

이런 분위기는 소실산에 저절로 감돌았고 소림사에도 가득했다. 그리고 소림사에 있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수천 수만의 중생들 마음 속에도 가득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딱 짚어서 말해 낼 수 없었다. 그저 웬일인지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들었고 영롱한 빛에 휩싸이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다.



체면 내팽개친 간청
"지난날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밀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 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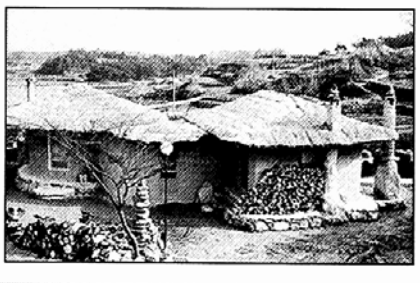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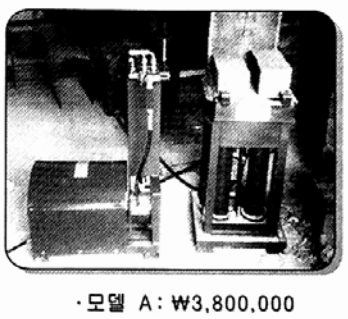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종립학교를 가다

(2)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필봉(筆峰)아래 자리한 정광 중 · 고등학교. 해방 이후 만암 송종헌 스님의 발기로 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 등 전라도 지역 5개 본사에서 사재(私財)를 모아 설립된 광주 · 전남지역의 유일한 불교종립 학교다.

1946년 목포 정광사를 임시학사로 첫 발을 내 디딘 정광 중 · 고등학교는 6 · 25 당시 폐허가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중심 학교로 발돋움했다.

사이버스쿨 운영 정보인재 길러

백양사 등 5개본사 설립
4년제대학 진학률 97%
북한 어린이돕기 운동
동문 장학회서 후원도

지금은 석천운 이사장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동이 투철한 사람 △지력(知力)을 갖추어 자기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자비심으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항상 탐구하며 창조적 기능을 가진 사람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로 불철주야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지 총 48,037㎡에 운동장, 어학실, 컴퓨터실, 방송실, 과학실, 예절교실, 생활관, 체육관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정광 중 · 고등학교에는 각각 779명과 814명의 청보리가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 곳곳에는 학교 역사와 함께 사찰 소개 등 다양한 게시물이 있어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손색이 없다.

고등학교가 지난해부터 교육정보화 시범학교인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광의 자랑거리다. 교사와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자 는 목적으로 웹 중심의 정보 활용 교육 기반을 구축한 사이버스쿨은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교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정보화 소양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광은 교사들도 수업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교육 연구 시범학교로서 손색이 없다.

학생들의 소질 · 적성계발 및 취미 · 특기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여 대학진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기 · 적성 교육활동 또한 정광이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학 진학과 연계된 영어회화, 시상상식 토론 등 31개의 부서를 운영하며 대입 추천 전형시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 결과는 지난해 진학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7%에 육박하고 서울대 등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해 지금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광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광은 종립학교로서의 불교신행활동도 왕성하다. 중 · 고등학교 불교학생회는 매주 클럽활동시간을 통해 정기법회, 다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성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손발이 돼 주고 있다. 또한 전교생이 자비의 쌀 모으기,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통일 돼지 모으기 등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불교어머니회가 창립되어 현재 교직원들과 매달 1차례 정기법회, 분기별 성지순례와 같은 신행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신행활동으로 인근 주민들은 부처님 마음을 가진 참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로 정광을 인식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 5개 본사에 의해 설립된 정광 중 · 고등학교는 사이버스쿨 운영, 특기 · 적성 교육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도량이다. 사진은 중학교의 다도실습 장면.

이 외에도 경철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 동문 등 정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지난해 설립한 '맑은 빛 룸비니 장학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청보리들을 돕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근간이 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거품제거와 교육방송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실시, 체벌 없는 교단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지도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주일 · 김두식 기자

"발우공양 등 사찰문화 체험"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

해남 미황사는 7월22일부터 7박8일간 세심당에서 '2001년 제4회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연다.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문교육을 비롯해 인성교육, 다도, 참선, 발우공양,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사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강(미황사 주지) 스님과 법인(대둔사 수련원장) 스님이 교육을 맡을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금강 스님은 "이번 학문학당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가르키고자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교육 인원은 남녀 초등학생 15명씩으로 접수 마감은 30일까지며, 참가비는 15만원이다. 또 2차 교육은 8월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061)533-3521

청소년 단신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까지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마련한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게임, 찬불가, 레크댄스 등 세과정으로 나눠 진행할 이번 교육에서는 △싱어롱 특강 △여름나라 게임특강 △신바람 레크댄스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분임토의 △율라율라 체조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비는 4만원. (02)738-7860

명성여중 자료전시관 열어

명성여자중학교는 19일 교내법당인 연화당 입구에 불교교육자료 전시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봉행했다. 불교유물과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전시관에서는 전시 유물과 불교교육자료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개교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전시관에는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전통문화 유물, 역사사진 자료 등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기증품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해 놓았으며, 전시된 유물들은 학생들의 역사및 불교교육을 위한 생생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02)454-1758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⑤

• 누워서 하는 동작 •



선무기법 기초훈련과정의 하나인 누워서 하는 동작은 허리나 척추, 목, 골반을 똑바로 하고 단전하복부에 기를 모아 온몸으로 기가 통하도록 한다. 이러한 동작을 할 때 잡다한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해 항상 '이뭐꼬' 화두를 이용한 호흡을 한다.

〈골반과 척추교정운동〉

1. 양손을 머리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2. 두 발목을 바짝 앞으로 당겨 구부리고, 머리를 들어서 똑바로 발가락을 쳐다보며 발뒷꿈치로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3. 단전에 힘이 모아지면서, 떠는 움직임이 아니고 몸 전체를 하나로 유지하여 움직인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비뚤어 졌던 골반과 척추가 교정된다.

척추-목-골반 똑바로
단전 기모아 온몸으로

〈혈액순환 촉진〉

1. 바닥에 누워 손과 발을 들어 흔든다.
2. 손과 발에 연결된 경락을 통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3. 발목과 손목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숨을 내쉰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3박자 농업론' '禪茶'가 교육철학

정광고 경철 교장
정광중 전왕인 교장



◇경철 교장



◇전왕인 교장

정광학원과 30년 세월을 함께 해 온 고등학교 경철 교장은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지역의 재가불자들과 문단에서도 '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목이다. 경철 교장은 학교운영과 교육신조를 묶은 분명한 철학을 지니고 있다. 일명 '삼박자 농업론'이다. 교육과 농사를 같은 원리로 보고 종자론, 재배론, 토양론이라는 3박자론을 주창한 것.

"종자론이란 자질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을 뜻하고, 재배론은 우수한 교사임용을 통한 수업 내용의 내실화 입니다.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교사가 좋은 학교교육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현실 아닙니까. 교육당국과 학교, 학부모들의 공공노력이 절실한 조건이죠. 그래서 나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마음을 모아 최적의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의 토양론을 첨가하여 3박자 농업론을 외치는 겁니다."

경철 교장이 지역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왕성한 활동가로 평가받음으로 인해 정광고등학교의 이미지도 상당히 활력 있게 자리를 매김 해 가고 있다.

정광중학교의 전왕인 교장은 학교의 특색사업인 선다(禪茶) 예절교육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선다예절을 통해 전통예절과 불교의 수행정신을 가르쳐 인격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장은 실천이 없는 학문이 인간과 사회를 어둡게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교법사실에서

이동배 교법사

"불심으로 마음 아름답게"



정광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과 불교학생회를 비롯한 각종 불교활동을 이끌고 있는 이동배 법사는 모교에서 일하는 행복한 사람임을 자처한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동배 교법사는 정광의 법당으로 출가를 한거나 다름이 없다. 학교를 집 삼아 생활하며 법당을 가꾸고 각종 법회와 상담, 수업을 억척스럽게 해 내는 이동배 교법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세대 감각을 놓치지 않는 현실감과 교육자로서 법사로서의 근엄함, 거기에 10여년 군법사 생활에서 습득한 지도력이 보태져 항상 밝고 따뜻한 법사님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정신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법당과 교법사실이 학생들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또 다른 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배 교법사에게는 당면한 소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교육 인재불사의 전당임을 표상하는 불교 상징물을 교내에 조성하는 것이다.

정보센터 수혜관에 불서 보내주세요



정광중고등학교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15일 개관한 수혜관(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 정보센터다.

신도시로 발전하는 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수혜관을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교서적을 대량 비치해 지역민들에게 불교도서관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의 뜻. 도서의 전산화 관리는 물론이고 500여 석의 열람실과 2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서가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컴퓨터 10여대 등을 갖췄다. 그러나 수혜관의 서가는 아직 빈 곳이 더 많다. 학교에서는 지역 불교계 등에서 불서를 기증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062-941-2498)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한생각 잘하면 찰나에 지옥도 무너져

나는 누구입니까

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인과에 따라 갑니까? 그 인과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인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전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주인공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나는 누구인가.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에 대해 항상 얘기해 드리죠. 수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작년 수박 씨를 심어서 내가 됐는데 내가 "이게 뭣고?" 할 때는 벌써 그 시대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자기라는 수박이 "이게 뭣고?" 하지말고 수박은 그대로 수박이

> 나는 누구이며
> 어디로 갑니까
>
> 과거와 현재의 나
> 상봉하면 알수 있어

며 수박 속에는 반드시 수박 씨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뭔고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난 급해서도 그렇게 못 있어요.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박은 수박 씨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수박 씨는 봄이 오면 심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려서 만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아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도 끝간데 없이 먹이는 것을 믿고 일체를 자기 주인공에 일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으로 주인공이 무엇인가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인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종자며, 바로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행이 종합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 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공 밖에는 자기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거수 일투족 뿌리와 싹과 같이 붙어 있는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는 거죠.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뿌리로 화해서 싹을 일으킵니다.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싹이 뿌리에 의해서만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싹은 뿌리를 진정 의심 없이 믿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내가 싹이 어디 있는지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뭣고?'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봐도 딱 깨서 직접 먹어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벌레 먹는 잎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맡겨라! 때에 따라서는 이 몸이 아프면, 바로 마음 도리에서 약사가 돼 줍니다, 스스로. 그 도리를 그래서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약사가 돼 주고, 그것도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자리를,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순간 우리가 집에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그렇게 거기다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게 될 때,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느냐 이 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사는 걸 보면 찰나찰나,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되겠다 형님을 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야,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 사위가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살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 줄을 아시고 생활 속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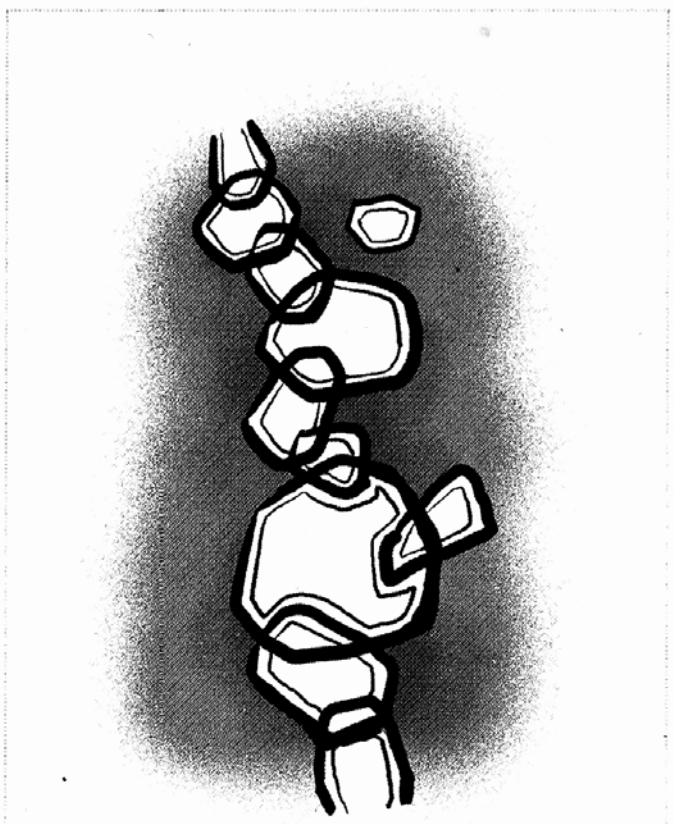
청정의 참뜻 알고 싶습니다

문 청정의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청정이 청정이 아니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깨끗하다 더럽다하고 따지는 그 마음을 놓고 보는 것이 청정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답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하다 하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을, 일체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내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어찌 청정한 줄 알았으리까?' 하는 얘깁니다. 그 청정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 놔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그것을 맡겨 놓지 않는다면 한 군데서 들고나는 청정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데 그것을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정함이라는 것은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를 캐치한 그 지혜가 바로 청정입니다.


그림 · 최주현

새것 입력하면 앞에 넣은건 없어져
일체만법 하나도 빠짐없어야 청정

이세상은 정말 苦海인지요

문 불교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해서 너도 되고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다 등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비슷한 것 일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나를 부정하니까 마음은 편한 것 같긴 한데 욕심이 없어져 사회의 발전도 없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고해입니까? 그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동물의 세계처럼 일부 약육강식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사회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서 노력하면 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삶의 보람은 일을 통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고 또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사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정하게 일하고 돈벌어서 사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으면 뭐 그렇게 인생에 미련이 있습니까? 고해라는 것은 패배자의 자기변명 아닐까요?

답 예전에 부처님께서 최초에 사성제를 설하신 것은 '고(苦)' 하나만 없앴다면, 집(集)도 없고 멸(滅)도 없고 도(道)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절에 다닌다는 것은 밥을 놓고 떡을 놓고 빌러 다니면서 도깨비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덩어리는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다 하면 벌레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다 들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수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오기에는, 지 · 수 · 화 · 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습과 욕심과 또는 의식 자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과로서. 원수를 졌든, 또 원수가 아니든, 선이든 악이든, 살면서 수 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해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아서 인간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걸 왜 '고 덩어리'라고 하는가? 이것이 순간순간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또 그렇게 인연을 만나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사랑을 하게도 만들고,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 십억 마리가 지금 모습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렇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되죠. 이게 인과예요, 업보고. 그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부 나온단 말입니다. 말도 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전부 그 자리에서,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생길 수도 없고….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일초 일초를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고정됨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 업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가, 대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다 되놓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 데다가 또 다시 녹음을 하면 테이프에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앞서 넣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 오는 거를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거 연방 퍼 먹어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무간 지옥이 무너지고 독사 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신다면 땅을 두드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일초 일초가 따로 없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도리를 가슴 깊이 새겨보신다면, 우리 순간 순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교를 알고 싶습니다

문 저는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불교는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가톨릭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대로 불(佛)입니다. 불교는 어디 하나에 국한돼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끝간데 없이, 시발점도 종점도 없는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영원한 생명이요, 교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자체가 바로 교거든요.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이 전부 불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벌레 하나도 생명 없는 게 없으니깐 공체로서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는데 어찌 불교가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생명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말하고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어느 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막론해 놓고 다 마음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살아나가고 사랑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또는 주고받지 않아도 벌써 주고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진리가 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어떠한 애고가 생겼다거나 병고가 생겼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앞에 닥치면, 칠성님한테 빌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걸렸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 가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는 지신을 찾고, 그걸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대로 찾습니다.

> 잘되기를 바라면서
> 관하고 있는데…
>
> 놓으려면 놓았다는
> 생각마저 놓아야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마음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일일이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빌면서 살겠습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해결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을 발견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자니 이렇게 밖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를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멀리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말고 내 마음 안에 일체의 근본과 둘 아니게 직결된 나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며 내가 '나' 라고 믿는 지금의 '나' 는 지금까지의 업으로 인해 생각되어지는 '나'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 의 시작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에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요.

답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먼 데서 찾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열 가지 행을 한

☞ 20면으로 계속

가로른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근본에 놓아 선악을 뛰어넘는 묘법

☞ 19면에서 계속

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열 가지 행을 했을 때도 줄지도 않고 만 가지 행을 한 것을 들인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우리 생활 전체 들고나는 문은 하나이니까요. 문이라고 해서 이상스럽겠지만, 우리가 생겨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행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게 바로 생활법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그것이 하나로 들고 하나로 나고 그게 그대로 행이에요. 여러분이 나기 이전 그 자체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이런 말 가끔 잘해요. 콩 나무가 콩 씨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콩 씨가 콩 나무가 된 줄 모르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니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콩 나무에 열린 콩 씨가 하는 소리가 "이놈아! 그 콩 씨는 여기에다 두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면 어쩌느냐?"하니까 "어! 콩 씨가 여기 있네."하면서 콩 나무가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굼벵이가 매미가 됐는데 매미는 자기가 전자에 굼벵이였다는 걸 모르고 굼벵이는 매미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한 꺼풀, 한 교차로인데, 그 교차로를 통과시켜서 회전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한마음에 들었다 한마음으로 내고, 한마음에 들었다가 한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악이든 선이든 전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주인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 어느 신도가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나는 나쁜 일도 안하고 죄를 진일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가난하고 애고가 많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든 게 다가오느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올 것이니라.' 하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게 마음 놀음이니까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주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의 여러 의식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법계에 전부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고 인과응보가 생기고, 또는 영계성이 생기고,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물질, 마음, 의식 이런 거 하고 첨부가 되면 영계성이 되지요, 인연의 영계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거기다가 놔야 그것이 바로 자기발전소에서 모든 게 타버리는 거와 같아서 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이 되는 겁니다.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다 놔라 이겁니다.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도 거기 좇아 들어갈 것이고, 또 악업을 지으면 선업이 좇아 들어갈 테니까 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놔라 이거죠. 선업은 감사하게 놓고 악업도 거기서 나온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니까 선업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 하고 맹세코 거기다가 굴려서 놓는다면 악업 선업을 몰록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묘법이에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선이다 악이다 할 것도 없이 홀랑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기에 이렇게 일러 드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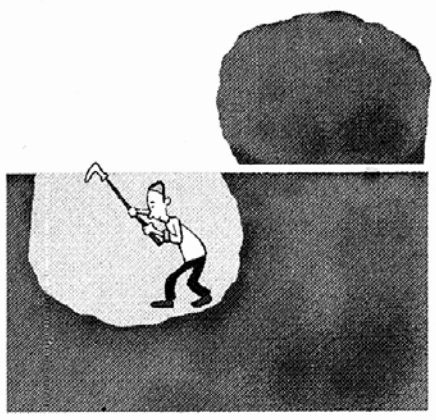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부터 깨달아야 둘 아닌 도리 알아

모든게 마음놀음…팔자운명은 없어

집안에 불상을 모시고 싶은데

문 평소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요즘 여러 재가불자들의 신도연합회 등에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불상(佛像)을 모셔서 조석으로 예불과 기도 정진을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첫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나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정에서 불상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빌고 지내다가 당신이 죽으면 그 불상을 어떡하시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부스럼 앞에서 우는 격이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나쁜 그런 업식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형상으로 부처님을 모셔 놓고 빌다 보면 자기 영혼들이 거기에 엉겨요. 정말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혼백이 거기 엉기고 의식들이 엉겨 가지고 다음에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깐 이거는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겁니다. 마구니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니한테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못살게 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열 분의 부처님을 보더라도 열 분을 각각 열 분으로 보지말고, 모든 건 내 한마음 속의 부처님으로,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죽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들고 다니는 걸 하려고요?

혹이나 부처님을 가정에서 모시더라도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모신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조석으로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목탁을 치고 그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생각을 잘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관' 하다 보면 할일 안한것 같아

문 가끔은 어떤 일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관하고 있다 보면, 마치 무언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의 관에 잘못이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사업과 가정의 안위 등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과연 바른 모습인가요?

답 왜 나는 망상과 번뇌가 이리 많나 하는 생각도 놓고, 또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놓고, 공부가 왜 이렇게도 안될까, 사생결단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놓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도 능는 것이 잘 안되나 하고 자꾸만 조바심을 낸다면, 그것은 마치 많은 다리를 가진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자기 다리를 보고는 '아니, 내 다리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로 다리가 엉켜서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냥 믿고 놓고 가면서 잘 가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일으켜서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도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늘이 무너져내려 죽는다 해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지.' 이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나는 왜 다 말겨 놓는데도 안되나? 부처님! 주인공! 제발 살려 주십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 달랍니까? 해 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빌어본들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 놓았다면 놓았다는 생각마저 없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한다면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근본을 믿고 좀 지극하게 맡겨보세요. 어차피 죽을 것 하루 빨리 죽으면 어떻고 하루 늦게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좀 살다가 간다면 하루 빨리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말고, 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더욱,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도 모두 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세진 빚 갚고 살고 싶어요

문 얼마 있으면 수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크고 작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지요?

답 내가 그전에 산으로 다니면서 공부하던 때의 얘깁니다. 장마가 들 때인데, 어느 때에 장마가 들지 인간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논두렁을 지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못처럼 물이 고인 데가 있었어요. 질척한 그곳에서 물을 떠서 논에도 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날이 궂은 날도 아닌데, 큰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뭘 걸고선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알 있죠? 개구리 알. 그거 떠내려 갈까봐 끌고 가는 겁니다. 풀 섶에다 끌어다 놓는 거죠. 그게 작아서 보이지 않더니 자세히 보니까 물에서 질질질질 끌고는 그 거대한 풀 섶에다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제 자식을 업어다가 풀잎 위, 나뭇가지 있는 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볼 양으로 거기 가서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걸 다 작업을 해서 기다란 알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이튿날 보니까 웬걸,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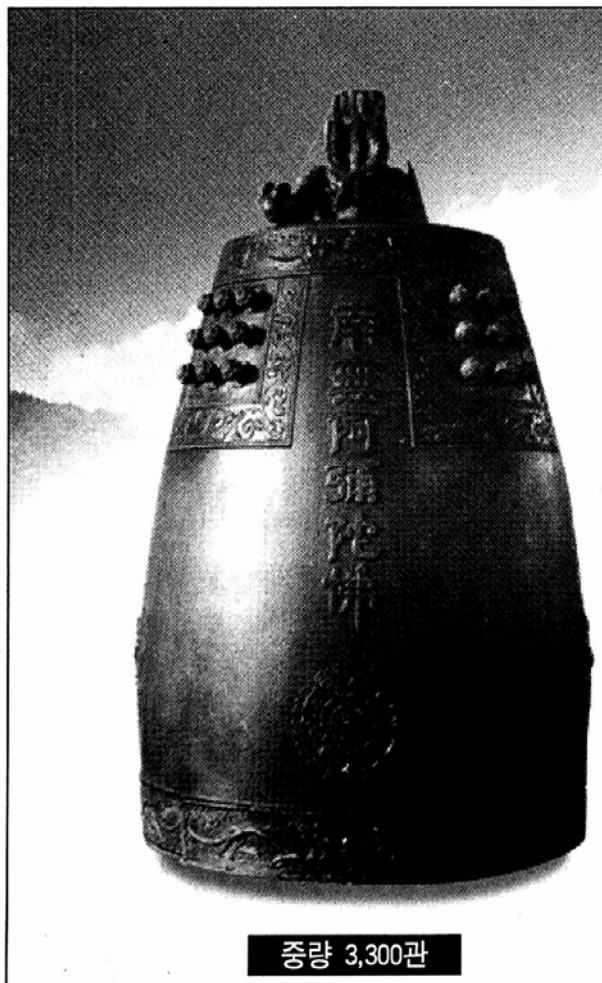
여러분은 거듭거듭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끼를 살리고 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끌고 가는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만이 자식들의 뿌리에 밑거름을 줄 수 있고 또는 뿌리의 밑거름이 부모, 조상님들한테까지 가서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 효도를 못해서, 효도는 차치하고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무슨 뭐 하나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묵은 빚인데 말입니다. 나도 묵은 빚 때문에 많이 울었죠. 그랬지만 개구리만 못해서야 되겠느냔 얘깁니다. 개구리뿐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장마가 들 것을 벌써 미리 알고 있고, 언제 태풍이 불어서 다 망가지고 쓰러지겠다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옥수수나무나 수수나무도 올해는 태풍이 불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 할 때는 뿌리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넓게 잡은 걸 보면 올해 태풍이 얼만큼 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물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각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견이 풍부한 인간이 어떻게 기복으로만 나가면서 도깨비 장난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귀신 짓을 하면 그런 습만 남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귀신밖엔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집을 많이 지어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공부를 해야 물을 한 컵 떠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공부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마음공부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올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그 통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도 햇빛을 줄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서 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려면, 그리고 기르려고 하기 이전에 당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한테 기대고 한 뒷박 얻어서 먹고는 그것 없어지면 또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벗어나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묵은 빚을 다 갚을 수도 있고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해서 모두 보살 부처가 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갚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불어 벗어난다면 하다 못해 초목들까지도 아마 합장을 하고 숭배할 겁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과립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가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지냅니다.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큰스님 모시고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입제일 : 양력 7월 7일 ㅌ(음력 5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 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차와 동시상담
❖ 효능 : 탁월한 독소제거, 뇌졸증 예방, 변비,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등
서울지사 02) 957-8342
508-0867
011)479-06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미만
011)481-6584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초빙』
■ 대한불교 조계종 미륵사에서는 신심있는 불제자로써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지 격 : 취득년도 1998~2001년 사이 [비구,비구니스님 특별히 환영]
■ 본 미륵사에서는 불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젊은 한의사 불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 륵 사** 청운 합장
053)651-9363

조계종 종음사(영남불교대학) - 진정한 대장부의 길 (※미혼, 고졸이상 만 40세까지)
행자모집 (남)
- 시설완비한 행자원의 독립운영 및 자율존중
- 전통적 수행을 통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바루공양)
- 스님이 되면 모든 공부와 포교의 충분한 뒷바라지
- 본 사찰의 전 강의를 들으며 주지이신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의 직접 지도

(※ 여행자는 본 사찰의 분원인 빌도의 수행관에서 공부함 - 또는 위탁교육)

행자원 011)506-2702 T.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kr
도심속의 대가람, 5만명의 학생 및 신도 포교의 수행의 새지평을 열고 있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전남강진천년고찰
공양주보살과 기와불사처 보살 모십니다
011)9611-8242

공양주 구함
▷ 도심속 조용한 암자
▷ 신심 돈독한 분
032)435-0478

[수원] 법 장 사
- 부설 > 동양학 연구원
  - 사암오행 침법
  - 오운육기체질학
  - 생활동양의학
  - (뜸, 부황, 추마, 선체조)
  - 전통 명리학
- 연구생 모집 : 0名

※ 무료수강하시면서 공양주 하실분 구함
031)238-0444

부전스님 모십니다
018)848-5702

신명 수료한 기도, 공부, 수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강사
055)932-5706

도와드리고자합니다
- 불사에 큰뜻을 품은 훌륭한 분을 외시고 수도하면서 몽사하고자 함
- 불교대학을 나와 법사로 활동중인 60대남
- 음양철학은 세계적으로 일인지이며, 명리학, 성명학, 참구요법, 서예등 포교에는 실력자임
- 인력이 필요한 암자나 포교당에서 봉사하고자 함
- 신도가 부족한 암자나 포교당도 관리해 드림
- 특히 비구니나 보살님이 운영하는데를 더 환영함

011)769-395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신체 건강 하신 분
011)577-7600
051)264-9621

산세가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보살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부전스님과 사찰 연결하여 드립니다.
011)337-5009

불교노인복지관리인모집
- 모집주관 : 대한불교 무상사
- 모집인원 : 10명(업무관리운영직)
- 모집대상 : 40세이상 남 · 여

본 사찰은 노인 복지 문화생활을 활성하여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의 새로운 생활불교를 만들고자 함으로 함께 일하실 인연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무상사 합장
031)637-0325
637-031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 영락사
011)289-1635
041)584-6675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위치 좋은 곳 포교운 하실 분
- 위치 : 부산 광역시 북구 심만덕
- 3층건물의 3층
- 평수 : 40평 옥상사용가능,
- 구조 : 법당 방 2개 주방,욕실
- 보증금 : 2,000만원 월 30만원
- 입주즉시 법회 가능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5)852-9202

절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 평수 : 약 7000평
- 가액 : 16억원
- 특 징 : 뒤로는 울창한 송림과 앞으로는 청평호수를 내려다보는 동남향의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문의:011)713-0233 김구봉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7호선 광명 지하철역 30m
- 평수 : 40평, 방 4개, 주방, 시설 A급
- 구조 : 삼존불, 지장전, 후불탱화, 지장탱화, 일로왕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2)2618-0908

사찰 안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정규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 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오성민 212-244-1443

암자토굴기도처최적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정남향 도로와 계곡 접하고 있는 준농림지 493평 벗꽃나무 가식제되었으며 전기시설 용이함
- 위치 :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의 중간
- 평당예상가액 : 7만원

011)843-477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전세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사천 부근
- 특징 : 멀리서 남해 삼천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소나무 숲이 좋고, 물이 아주 좋은 청정도량으로 신도가 많고, 기도도량으로써 아주 좋음. 스님이 해외이주 관계로 전세로 내놓음.
- 부지 : 약 3천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주지실 12평
- 전세가 : 1억 3천만원

주차장완비, 납골당, 노인복지시설을 하기좋음
017)844-944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법 당 : 20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500평
- 가 액 : 5억

- 위 치 : 천안 광덕
- 법 당 : 30평
- 산신각 : 5평
- 요 사 : 18평
- 부 지 : 2,000평
- 가 액 : 6천

- 위 치 : 성남 분당
- 부 지 : 920평
  - 차량진입가
  -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사찰 도량 임
-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3포,5포,금단청필)
- 요사: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군포시 당동 코너 요지
- 대지 : 120평 • 건평 :120평
- 특징 : 3면 도로 접함, 정원수, 정원석 유, 4층 건물 1층 다용도공간 (35평) 2~3층 방 3, 주방 거실 욕실구조 4층 법당, 주변인구 밀집 지역
- 가액 : 5억

016)356-1133
031)446-1133

포교당 안내
- 위치: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 가액 : 5억

02)436-3647
011)266-237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약 600평(국유지포함)
- 법당: 40평, 요사: 40평
- 토굴: 20평
- 가액: 3억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소재
- 부지: 약 300평(대지)
- 법당: 40평(목조)
- 요사: 2동 60평
- 가액: 2억 9천만원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지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용인 시내
- 대 지 : 450평
- 법 당 : 35평(목조, 5포, 7포)
- 요 사 : 40평(2동)

※ 신세좋으며 서울강남 승용차 40분 소요, 역시 오래된 주차장 완비

- 양도가 : 4억 (대출가능)

- 위 치 : 경북 의성 소재
- 부 지 : 12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60평(2동)

※ 포교정진도량 임

- 양도가 : 2억 2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사찰전세
- 위 치 : 인천시내
- 부 지 : 5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0평

※ 산정상에 있으며, 인천시내가 내려다 보임

- 양도가 : 6천만원

- 위 치 : 수원시내
- 대 지 : 170평
- 법 당 : 40평(2층)
- 요 사 : 70평(1층)

※ 뒤는 산이며 대단위 APT 단지 인접 포교 도량으로 최고 임

- 양도가 : 3억(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별장안내
- 위 치 : 경남 거창군 소재
- 대 지 : 600평
- 건물 2동 :
  ① 통나무로 3층 건축함 120평(큰방 5개)
  ② 황간 벽돌 건축 25평 (큰방 4개)

※ 산세 및 물좋은 별장 토굴용도 임

- 양도가 : 3억 5천만원

02) 561-7791
018) 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부곡 온천 2분거리)
- 대지 : 670평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체 : 30평, 신축 요사체 : 20평
- 가액 : 1억 8000만원

차량진입 가능, 산세 좋은 영험기도 도량

055)521-2028
017)586-3280

사찰 안내
- 위치: 포항근교 외진 곳
- 가액 : 6,500만원
- 전세 2300만원
- 대지 : 175평(실사용 300평)
- 건물 : 1층 60평 방 5개 공양간 1개, 다용도실 10평 2층 25평, 법당

0502)789-6577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물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합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 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부지 : 50평
- 법당 : 24평 • 요사 : 24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363평 • 법당 15평
- 요사 30평
- 창고 겸 화장실 7평
- 가액 9천만원

011)455-6198

암자 안내
- 위치 : 강서구 녹산동 (공단내 삼성자동차 뒤)
- 대지 : 340평

요사채 법당 거주용 주택 별도 3백년된 느티나무 산과 바다가 보여 전망 최적 2억 5천 절충
019) 533-862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포란형에 준 농림지
- 평당 : 4만원(절충가능)
- 평수 1170평 뒤는 산이고, 앞엔 저수지 보은읍에서 자동차로 7분~8분거리 대 가람토로 만들 수 있음. 큰길에서 농노 진입로 있음

(토굴도 있슴 - 가액 : 800만원)
장난전화 사절
011)9046-9903(스님직접)

사찰 (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632-19
- 건평 : 30평(목조한옥,요사채)
- 대지 : 67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53)475-7504
011)819-7504
정법사(기존사찰운영)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동 545 팔봉산 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 건너편 대로변에서 300m 지점
- 건평 32평(방 3, 법당 1)
- 대지 : 100평
- 가액 : 8,000만원(가격절충 可)

054)975-7933
011)9596-0130
성불사(기존사찰스님직접운영)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 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 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동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18) 533-77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찰 부지 (임야)
- 위치 : 가평 율길리 임야 (당. 만오천원)

37번 국도 130M(서파검문소 3km지점)
- 운악산을 뒤로하고 멀리 축령산을 바라보는 남향의 명당터.
- 임야 : 만육백평

031) 572-4747, 011) 320-406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011)9713-7680 (오후 6시이후)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복지포교로 지역에 회향"

도봉사암련 자우스님



"현대사회는 시스템사회입니다. 지역포교를 위해서는 인근사찰들이 연합하여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불교가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프로그램을 사암련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울 도봉사암연합회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 스님은 이를 위해 "사암련 차원의 복지법인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근 성북구와 강북구 사암련과도 유기적인 협조와 교류강화를 서

복지시설 운영 법인 추진

무등록 사찰 포용 계도나서

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강북구에서 분구되면서 창립된 도봉사암련은 도선사 등 강북지역 대표사찰이 즐비한 인근 강북구와 달리 도봉산을 중심으로 산재한 소규모 사찰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다보니 각 종단등록사찰이 50개인 반면 무속적인 무등록사찰도 50여개에 이르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불교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단이나 사세를 구분하여 분리하기 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도봉구 사암련은 무속적인 사찰도 끌어안아, 이들 사찰이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사암연합회는 현재 간부가 20명이다. 나머지 스님들도 전원 포교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리고 소임은 2년마다 순환하며 맡는다. 스님들은 지역불교 대표성과 각 단체간 창구역할을 하는 사암련의 소임을 맡으면서 지역정서를 이해하며, 안목을 키우고 있다.

도봉구사암련은 매년 1회 구민을 위한 기원법회, 매년 2회 자체간담회를 연합으로 개최하고 있다. 내



◇올 봄 도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한 사암련스님들.

년부터는 지역 문화행사와 방생행사를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도봉사암련은 지역복지시설 위탁을 위한 복지법인설립 준비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불교가 문화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회장 자우스님의 원칙이다. 도봉사암련은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인근 사암련과 연대하여 복지법인 설립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자우스님은 "사암련의 다양한 활동여부에 따라 몇년 안에 지역적인 차별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포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찰들의 포교비 증액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목포불교회관 29일 개관

불자 1백여명 모금 불사…포교 · 문화공간 활용

목포불자 100여명이 낙후된 지역불교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불교신행회(회장 난야성)는 29일 12시 목포불교회관을 개관식을 거행한다. 목포시 무안동에 들어서는 목포불교회관은 목포불교신행회 회원 1백여명이 10개월 동안 십시일반으로 불사금을 모아 불자들을 위한 깨달음의 공간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쓰여진다.

건평 40평규모의 목포불교회관은 목포불교사암련의 회의공간과 호스피스교육장, 시민 일자리 소개소, 시민사랑방, 불자교육도량으로 활용된다. 또 다양한 문화 · 교양 프로그램도 개설해 지역사회 문화공간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1일 창립된 목포불교신행회는 목포지역의 불교활동가 50여명이 '불자로서 행을 실천하여 침체된 지역불교를 일으키자'고 발원하며 창립했다.

창립이후 선방스님을 위한 치질, 백내장수술 지원과, 교도소 법회 및 장기수후원, 장의염불봉사, 무안연꽃축제 무료차시음회, 군부대 지원사업 등을 펼쳐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10개월만에 회원도 100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행회가 주력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군부대 지원사업의 경우, 인근 목포 지산부대는 10개월 동안 법회와 공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병이 불교에 귀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행회는 자체적으로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풍물패도 창립하여 활기찬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살아있는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회장 난야성 보살은 "앞으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재가불자 교육사업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구사원주지련과 광주사암련은 8일 겁외사에서 영 · 호남 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개최했다.

겁외사서 꽃핀 영호남 화합

대구·광주사암련 대법회

사부대중 5천여명 참석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호)는 8일 성철스님 생가인 산청 겁외사에서 영호남불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천운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법어를 통해 "영호남 불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외사에서 너와 내가 없는 집착과 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구불교사원연합회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16년 동안의 교류와 협력을 기념하여 사암련기를 교환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교지도자 호국법회

27일 경남도청…고산스님법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상남도불교협의회(회장 세민)는 27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국가 경제회생으로 민족번영을 기원하는 경남불교지도자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고산스님(쌍계사 조실)의 법문과 불교지도자선언문 채택 불교발전 간담회 등의 순서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전통양식 대웅전 기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9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불사 기공식 법회(사진)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스님은 "누구의 집이 아닌 바로 내 집을 짓는 것이니 내 마음 가운데 심주를 세우고 매순간 정성을 기울여 나간다면 세세생생을 함께 할 도량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부산지원은 목조양식의 108평 대웅전 불사를 시작으로 종무소 요사채 선방 등이 차례로 건립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산골소녀 영자양 불문 귀의



산골소녀 이영자(19 · 사진) 양이 최근 고향 인근의 암자에서 머리를 깎았다.

지난 2월, 아버지의 피살과 후원회장의 사기 등 어린 나이에 세상의 풍진을 맛보아야 했던 영자 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의 눈물과 세상 인심을 걱정케 했던 그는 "편하게 쉬고 싶다"며 3월 23일 머물고 있던 삼척경찰서 내 임시거처를 떠나 산골암자를 찾아갔다.

이 양은 최근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백일기도를 끝으로 이곳 암자 주지에게 간청, 삭발을 하고 승복까지 입었다. 이 양이 머무르고 있는 암자측은 "이 양이 속세를 끊고 싶다며 삭발을 간절히 원했다"면서 "현재는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이며 수행 장소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도선사서 생명방생법회

총무원(원장 정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도선사에서 생명살리기 환경방생법회를 개최한다. 02)735-5864.

태고종

충담대종사 소신 3주기

충담대종사 소신열반 3주년 기념법회가 24일 오후 1시 호명산 감로사에서 봉행된다.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나뉘어 진행될 추모재에는 지성 충담대종사 문도회장스님을 비롯한 문도들과 주요사찰 주지, 승가사와 감로사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2)2294-3418

용천사 극락전 낙성

인천 용천사(주지 대은) 극락전 낙성법회가 해운 승정스님과 혜초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일 봉행됐다. 이날 낙성을 한 극락전은 2층 전통목조양식으로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약왕보살이 금동불로 봉안돼 있다.

진각종

조불련 축하메시지 받아

효암 통리원장은 14일 진각종 창종 54주년을 맞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으로부터 축하메시지를 받았다. 박태화 위원장은 축하메시지에서 "창종 54돌을 맞이하는 귀 종단의 전체 불자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겨레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새 세기의 첫 해 6월에 창종일을 맞이하는 귀 종단이 6 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 벌여나가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륜종

통일기원 영령천도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화합과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호국영령을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민족화합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20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02)733-4445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아버리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붙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임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하관이나 사찬이나 묵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보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術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숙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시도가 앞게 될 것인지 치료기 소요될것지 더딤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아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송부사에 이길지, 질지,
- 은 사람을 채워야 할지, 채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라라지게 알아 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넘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물까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음셈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배 등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법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靈卜子 崔吳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54-3733

조계사 운영 **'서울노인복지 센터'** 개관 한달

어르신 2천명 매일 점심 공양

체력단련실 · 도서관 등 시설 갖춰
컴퓨터 · 서예 · 노래교실등 '인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점심을 거르며 소일하던 어르신들이 이제 조계사의 공양을 받으며 부처님 자비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주지 지홍)에서 위탁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자혜스님)가 지난 5월 18일 탑골공원 인근 경운동에 개관한 지 한달도 안돼 이용회원이 7,000여명을 돌파하는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회원 7천명 돌파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 서울시의 원각사지(탑골공원) 성역화사업과 동시에 미리 시작한 무료급식서비스는 매일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전국 최대규모의 무료급식을 자랑할 정도. 심지어 의왕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전철(3호선 안국역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을 타고 출근아닌 출근을 할 정도여서 하루평균 시설이용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휴게시설 하나 없는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체력단련실, 영화관람실, 공연장, 발지압공원, 게이트볼장, 이 · 미용실, 도서관, 샤워실, 양방진료실 등을 갖춘 최신식 시설에서 휴식과 놀이를 즐기는 한편 댄스 · 서예 · 컴퓨터 · 노래 · 영화 · 탁구 · 당구 · 장기 · 바둑교실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받다보니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입소문이 난 것.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 어르신들도 80여명으로 구성된 자치운영단을 구성, 시설내의 질서유지와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주인의식을 갖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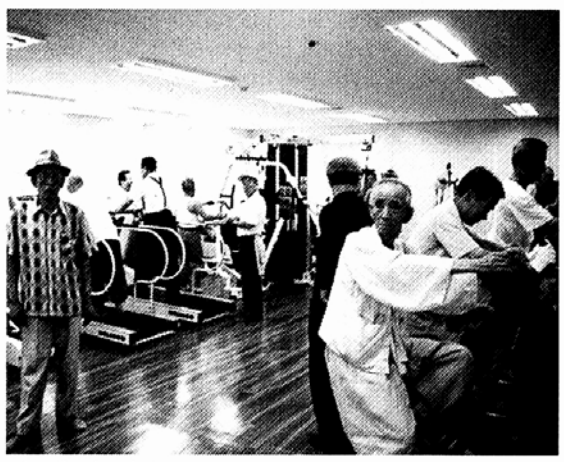
11일 창경궁 등 인근 문화재의 관광가이드 자원봉사를 맡을 30여명의 '어르신 통역봉사단'을 선발하는 등 분야별 '어르신 자원봉사회'가 구성돼 노래방, 이 · 미용실, 식당, 수지침실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문화예술봉사회도 구성해 풍물, 서양악기 연주 등 공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계사는 당초 무료급식 인원을 500~1,000명으로 잡았다가 무려 네 배에 달하는 2,000여명(쌀 5가마니 분량)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돼 예산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무료이용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와 자양사회복지관 운영권을 반환하고 노인복지센터 운영에만 총력을 쏟고 있다.

"불자 · 시민 후원 절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유명 불자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후원금 모금에 나설 예정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이명희 부장은 "소문을 들은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이 몰려와 시설이용 인원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무료급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자들과 시민들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2)739-9501, 후원=하나은행(예금주 서울노인복지센터), 162-910002-1590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실에서 헬스를 즐기며 건강을 추스리는 어르신들.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6 · 15남북공동선언 실천 다짐법회'에서 불자대표가 공동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6 · 15선언 실천
전국사찰 다짐법회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법회가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 1천여 사찰과 태고종 천태종 등의 사찰에서 15일 일제히 봉행됐다. 관음재일을 기해 봉행된 '6 · 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법회'에서 각 사찰들은 "이 땅위에 융성번영하는 통일조국, 현세의 지상정토를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공동선언을 계속 철저히 실천해 나가려는 우리들의 서원을 삼가 부처님전에 발원한다"는 내용의 공동발원문을 낭독하며 통일을 기원했다. 한명우 기자

가뭄극복 '불자도 한마음'

조계종 · 진각종 성금전달…송광사 철야정진 기우제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불자들도 정성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3일 KBS에 가뭄극복 성금을 전달했으며,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3, 14일 중앙언론사 및 방송사를 각각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진각복지재단은 13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인 춘천시 남산면사무소를 방문, 최원혁 면장과 김주열 춘천시의원에게 양수기 사용에 필요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11일 오전부터 13일까지 48시간동안 스님과 신도들이 단비를 기원하는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 후, 13일 시내 송광체육공원에서 기우제를 봉행했다. 이날 기우제는 도량을 청정히 하는 제단열음을 시작으로 씻김굿, 반야심경 봉독, 청우문 낭독, 영산재 시연,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 단양사암연합회(회장 법광)는 13일 도담삼봉에서 '가뭄 해갈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했으며, 농림부불자회(회장 나승렬)도 같은날 과천 보광사에서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올렸다. 불자들은 한결같이 지 · 수 · 화 · 풍 4대에 감사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김재경 기자

비로자나 청소년협
미아리 사랑방 수탁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혜명)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사랑방(소극장)을 수탁, 협회 출범이래 첫 개가를 올렸다. 실내공간 66평에 각종 조명, 음향시설 등을 완비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인 미아리사랑방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서울 성북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문화단체를 발굴, 육성시켜 건전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보급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문화공간이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미아리사랑방 운영에 대해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북구의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문화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퀴즈대회, 동요대회, 인형모음전, 애니메이션 영화전 등을 전개하고, 청소년문화사업으로 청소년 가요제, 사진제, 연극제, 미술제, 댄스페스티벌 등을 매년 1차례씩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생명나눔 '장동건 신드롬'

홍보대사 활약이후 장기기증 10배 급증

대학생 캠페인도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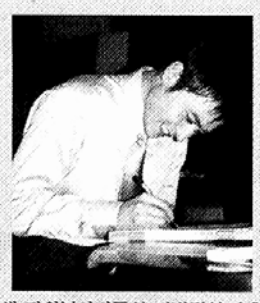
불자 인기탤런트 장동건씨가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기증을 서약(사진)하고 홍보대사로 활약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젊은층의 장기기증 서약이 쇄도하고 있다.

4~9일 일주일 동안 생명나눔실천회의 인터넷(www.lisa..or.kr)과 전화를 통해 접수된 장기기증 서약서는 모두 220건, 평소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영화 '친구'의 주인공인 장 씨가 장기기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클럽이 사후 시신기증 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대학생 장기기증 운동을 펼쳐온 대학연합 봉사동아리 '라이프 셰어(life share)'도 최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120명중 100명으로부터 장기기증 서약을 받은데 이어 성균관대, 서울여자간호대학 등 8개 대학에서 기증 캠페인을 펼쳐 모두 300여명의 서약을 받아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회는 동국대 라이프 셰어 회원들과 장동건씨가 함께 하는 장기기증 캠페인을 부산에서 펼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장동건씨가 소속된 기획사도 자체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회 관계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6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1층에서 라이프 셰어(Life Share) 기본교육 및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게 됐다"며 즐거워 했다.(02)734-8050 김재경 기자



임내규 특허청장
편향대책위 사과방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본인은 새벽에 미사에 다녀왔다"는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임내규 특허청장이 6월 12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을 찾아와 사과했다.

임 청장은 양산스님에게 "본인의 발언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불교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특허청 내 종교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스님은 "내 종교가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지리산댐 재추진 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2011년까지 남강 3곳 등 낙동강수계 7곳, 영산강 또는 섬진강 1곳 등 모두 12곳에 1억t 규모의 중소형 댐을 짓기로 발표하는 등 그동안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진 지리산 댐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건교부의 지리산 댐건설 재추진 움직임은 사상 유례없는 올 가뭄을 계기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지리산 지역 등에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12일 2011년까지 낙동강 7곳, 한강 3곳, 금강 1곳, 영산강 또는 섬진강 1곳 등 모두 12곳에 1억t 규모의 중소형 댐을 짓기로 하고 전국 30곳의 댐 후보지를 대상으로 경제성 · 기술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그동안 지리산 댐 건설 논의가 백지화한 것으로 알고 있던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과 범영남권낙동강유역댐 반대투쟁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가뭄을 이용해 댐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건교부의 비열한 행정행위"라면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미 온 국민과 종교 · 시민단체, 산악인들이 저지한 지리산 댐 계획을 가뭄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되돌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취수원의 다변화, 중수도의 도입, 안정적인 지하수의 활용, 누수율 줄이기 등 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근본적인 물대책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비로자나 청소년협
미아리 사랑방 수탁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혜명)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사랑방(소극장)을 수탁, 협회 출범이래 첫 개가를 올렸다. 실내공간 66평에 각종 조명, 음향시설 등을 완비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인 미아리사랑방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서울 성북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문화단체를 발굴, 육성시켜 건전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보급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문화공간이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미아리사랑방 운영에 대해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북구의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문화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퀴즈대회, 동요대회, 인형모음전, 애니메이션 영화전 등을 전개하고, 청소년문화사업으로 청소년 가요제, 사진제, 연극제, 미술제, 댄스페스티벌 등을 매년 1차례씩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남북 대화채널 가동"
실천승가회 14일 성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14일 6 · 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과 북은 민족공조와 평화공존을 위해 조속히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또 남북경협확대와 북한 개방에 따른 우리측의 지원확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을 촉구했다.

김원우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시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완주 화암사 가는 길에 선 돌미륵.

민중과 더불어 울고 웃는 미륵

감성으로 보는 절

<10> 사무량심의 지킴이-돌미륵

절 길에 들어서면 늘 눈에 먼저 뜨이는게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가게를 차려놓고 버젓이 장사하는, 이른바 장사꾼들이 많지만 길가엔 보따리를 늘어놓고 올망졸망 앉아서 장사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장사를 업으로 하는 장사꾼 들이 아니라, 집에서 텃밭처럼 가꾼 소출한 콩이나 팥 따위 작물, 산 또는 들에서 직접 캐온 나물들을 '반짝 장사'로 잠깐 동안만 팔고 들어가는 아낙네 또는 할머니들이다. 피부가 거칠게 탄 아낙네 그리고 허리꼬부라진 할머니들이 작은 보자기에 늘어놓고 파는 이 모습은 원지 언제나 나를 괜한 설레임 속에 그들 앞에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오천원만 줘." 오천원? 나는 놀란다. 도시에서 점심먹고 덩달아 마시는 두잔 커피값도 안되네. 그 보다도, 싱싱한 고사리 산나물이 나는 참으로 신기롭고,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마디, 가락은 더 없이 나를 감동시킨다.

어느날이었다. 남도의 어떤 절에 몇몇 사람과 같이 갔다. 같이 간 한 분중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은퇴목사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평생을 가난한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목회를 하고 은퇴한 분이었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만을 위해 몸 바친 분이라서 그런지, 그분의 언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고, 너그럽고, 온화한, 그런 목사와는 아주 달랐다. 몹시 거칠고, 말하자면 '막가파' 목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 였다. 그런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언젠가 나에게 슬쩍 변명 비슷하게 고백(?)을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자' 들과 싸우며 살려면 이러지 않아선 안된다는 거였다. 그게 아주 성격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분은 의리파여서 내가 뭐를 사려고 하면 얼른 뛰어와서 돈을 치러주는 충성심(?)을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 나는 늘 고맙게 호의를 받는 편이지만(염치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날은 좀 달랐다. 할머니와 그 목사님은 흥정을 하고 있었다. "이거 얼만데?" "오천원만 줘요." "이거 진짠가? 좀 깍아줘." 나는 얼른 돈을 내 주고 까만 비닐 봉투에 산나물을 담아갖고 도망쳐 왔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회했다는 분이 혹시 '초매치매초기증상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 아닌가? 오천원 깍아봐야 서울에서 커피 한잔 값인데, 그걸 깍아야 속이 시원할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돈 있는 이들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좀 화가 난다. 그것이 좀 엉터리 물건이면 어떻고, 좀 비싼들 집안 기둥뿌리가 빠지는 것도 아닌데. 절에 가서도 그렇게 '나'를 못 버려? 나는 그들과 한마디 말 건네는 것, 내가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 몽땅 털어봤자 몇만원에 지나지 않는 보자기의 물건, 그것을 다 팔고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 손자의 손에 몇 푼 집어줄때의 그 즐거움이란 지난 살의 온 시름을 다 풀고도 남는 기쁨이 아닐까? 나 혼자 상상해 본다.

우린 너무 높이 앉아 있다. 그리고 내 가슴밖에 너무 높이 담을 쌓아 놓고 산다. 엄음산을.

요즘 TV연속극의 '왕건'이 인기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다. 아마 궁예 역의 연기가 독특한 삶을 살아 온 궁예의 일생과 어울려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됐건 세상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온 미륵이라고 큰 소리 치던 궁예가 몰락의 길로 들어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도 처음엔 정말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의 삶에 무량 자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구해 보겠다는 무량 보리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가 왜 몰락 했을까? 그것은 그가 므지렁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국가'라고 하는 '제도의 틀' 속에 군림함으로서 이미 미륵의 종성을 잃게 된 때문일 것이다. 종교는 제도의 틀 속에서는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미륵은 천상의 상생(上生)세지에서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 오셔서, 내 마음속에 미륵이 되는 세상이 곧 불국정토가 아닐까? 그러므로 미륵은 황금빛 옷을 입고 '대웅'으로 '큰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 초입이나 절 뒤산에 허름하게 비와 눈을 맞으며 우리를 맞이하는 것임을 나는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돌 미륵을 보고 사범행(四梵行)의 길을 꺼닫고, 돌미륵에게 절한다.

미륵은 절 초입 · 뒷산에서 눈 · 비 맞으며 중생 기다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사자상승' 도도한 禪宗 인물사

한글대장경의 세계

전등록

남송 도원스님 편저
1701명 선사 행적 기록



전등록(傳燈錄)은 과거7불과 천축의 28조, 진단(震旦)의 초조 보리달마와 그 후대로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두 나라,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승 등 선문의 선장(禪匠)들을 전등상승(傳燈相承)의 차례에 따라 열거한 선종의 인물사다. 각 조사와 선사의 성, 속가의 가계, 출생지, 수행 경력, 주석한 곳, 입적한 연대, 세수, 시호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다. 경덕은 남송(南宋)의 연호인데 연호가 책의 이름 앞에 붙은 것은 저자 도원(道原)이 남송 원년에 이 전등록을 황제인 진종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진종은 1년 동안 이 책을 교정토록 했는데 그 이전에 도원이 언제부터 저술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현재 전하는 전등록이 그대로 도원의 편작이라고 볼 수 없다. 가감과 첨삭이 이뤄 졌다는 것이다.

전등록의 편자인 도원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다. 일부의 기록에 의해 그가 동오(東吳) 출신으로 천태덕소(天台德韶)의 법을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등록은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에 있어서 간행 번호는 19번부터 81권까지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권에는 비파시불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7불과 제1조(祖)인 마하가섭으로부터 제14조에 이르는 용수에 이르는 14명과 제2조 아난에서 방계로 뽑은 천축의 15명 조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중 과거 7불과 13명 조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전등록은 그야말로 도도하게 흐르는 불교의 역사 가운데 큰 줄기인 선불교의 인물사인 셈이다. 28권까지는 선사들의 행적과 문답 등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고 있지만 29권과 30권은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기록들을 정리했다. 29권에는 귀종지상(歸宗智常)과 백거이 등의 찬, 송, 게, 시 등이 17종 222수가 실렸으며 30권에는 부대사의 심왕명(心王銘)을 비롯한 23종의 명(銘) 기(記) 잠(箴) 가(歌)를 싣고 있다.

2권에서 주목할 점은 보리달마가 과거 7불과 천축 28조의 법맥을 이어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선종의 초조로 확고하게 삼음으로써 중국 선종이 인도의 7불이래 면면히 사자상승한 불교로서의 권위를 확립한 것이다. 3권에서는 보리달마의 기록이 등장하고 5권에서 혜능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또 하나 전등록이 갖는 중요성은 공안이라는 선불교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1700공안이라고 하는 말이 전등록이 52세(世) 1701명의 이름을 들어 그 어구를 수록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10세기의 중국은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로부터 반세기 이전에 불교는 무종에 의한 회창(會昌) 법난을 겪었었다. 선은 이러한 과도기의 전란이 미치지 않는 양자강 이남의 평화로운 땅에서 공안이라는 새로운 가풍을 형성하며 줄기를 힘차게 뻗어갔으며 그 과정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승들의 문답과 행적들이 알알이 선불교의 지침이 된 것이다.

조당집에 비해 훨씬 하대의 선사들까지 망라해 소개하고 있는 점과 공안의 집록이라는 성과로 인해 전등록은 돋보이는 것이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yt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6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